

安邊 釋王寺 간행 판본의 서지적 연구

A Bibliographical Study of Buddhist Literature Published at
Seokwang Temple(釋王寺) in Hamkyung Provinces

임 기 영 (Lim, Kee-Young)*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간행 불서의 분석 |
| 2. 석왕사의 연혁 및 서적 간행 | 4.1 간행 동기 |
| 2.1 연혁과 역사 | 4.2 간행 시기 및 판종 |
| 2.2 조선시대 사찰의 위상 및 서적 간행 | 4.3 주제별 분포 |
| 3. 간행 불서의 현황 | 4.4 판의 형식 |
| 3.1 간행 현황 | 4.5 간행 참여자 |
| 3.2 전존본의 특징 | 5. 맺음말 |
| | <참고문헌> |

< 초 록 >

이 연구는 조선시대 함경도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 손꼽히는 석왕사에서 간행된 판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석왕사의 출판 활동은 중종 36년(1541) 『蒙山和尚六道普說』을 필두로 16세기 4종, 17세기 5종, 18세기 6종, 19세기 3종이 간행되었다. 이와 같이 간행 기록과 실물이 확인되는 자료는 모두 18종이었고, 그 중 17종은 실물 자료가 남아 있어서 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序·跋을 통해 남긴 사찰 간본의 간행 동기는 주로 佛徒 및 후학들의 수행이나 학습 목적으로 판각이 이루어졌다. 또한 문집이나 事蹟類들은 자료의 보존이나 후대 전승을 위한 출판 활동이었고,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판각도 있었다. 간행 방식은 목활자본 1종을 제외한 17종이 목판으로 이루어졌고, 간행된 주제는 宗義部 禪宗類 6종(33.3%), 經典部 4종(22.2%)으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 사찰 승려의 문집류 3종(16.7%)과 사적류 2종(11.1%) 순으로 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전존본의 형태적인 특징과 판본의 형식을 고찰하고, 간행 사업에 참여한 다양한 직역의 참여 실태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간행 참여자들이 비슷한 시기 간행된 여러 간본의 판각 활동에 중북으로 이름을 올린 정황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당시 사찰 출판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要語: 釋王寺, 寺刹版, 安邊, 佛書, 佛經, 『蒙山和尚六道普說』

*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실(impussiant@knu.ac.kr)

접수일: 2013년 5월 29일 최초심사일: 2013년 6월 5일 심사완료일: 2013년 6월 26일

<ABSTRACT>

This study dealt with Buddhist scriptures that were engraved in Seokwang temple which was considered representative temple at Anbyun area of Hamkyung provinces. According to the research, publishing of Buddhist scriptures in the temple was carried from 16th century to 19th century. Meanwhile, there were 18 kinds of Buddhist scriptures which included existing books and remained in historical records as well. Among the number of 18 kinds, existing books in various institutions of the country were 17 kinds. The records in the Buddhist scriptures show that some of them were engraved from a motive of peace toward King and royal family. For the rest, some kinds were published from their making a wish of temple members or some were the outcome from learning purpose of Buddhist scholar. And then in subjective distributions of the scriptures, Zen sect(禪宗) was the most favorable area followed by the Buddhist scriptures and common scriptures so forth. Moreover analysis of the records in the end of a volume show that there was an positive role and participation in the publishing of the temple whose position were ranked engraver, manager, woodcutter, cooking part and such like.

Key words: Seokwang Temple(釋王寺), Woodblock printing of Buddhist temple, Anbyun area, Buddhist scriptures, *Mosanwhasangyookdobyseol*(蒙山和尚六道普說)

1. 머리말

우리나라의 인쇄문화 발달사에서 사찰판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이는 한국 목판 인쇄술의 남상으로 간주되는 신라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을 비롯하여, 고려 초기의 인쇄물로 11세기 穆宗 7년(1007) 『寶篋印陀羅尼經』과 靖宗 8년(1042) 崔積良의 『金剛般若波羅密經』 등 초기 인쇄물의 상당수가 사찰에서 간행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전존하는 고문헌 중 사찰에서 간행된 판본의 비중을 고려할 때, 고려와 조선 시대를 통틀어 사찰의 간행 활동이 한국의 출판 문화사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학자들은 일찍부터 사찰의 출판 활동에 관심을 보여왔다. 그 결과 비교적 오랜 역사와 큰 규모를 자랑하는 松廣寺나 海印寺, 通度寺나 雲興寺 등 사찰 단위의 출판 활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에는 북한의 사찰 가운데 普賢寺 간행 서적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말 선초의 無學 自超(1327-1405)와 태조 이성계의 밀접한 인연으로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석왕사의 서적 간행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함경남도 安邊에 위치한 석왕사는 조선 개국과 더불어 왕실의 願堂으로 지정되었고, 일부 기복은 없지 않았으나 조선 말기까지 그 세를 유지하여 왔다. 또한 일제강점기 31본산제도가 실시되던 때에도 40여 채에 달하는 건물과 48개의 말사를 관장하며 지역을 대표하던 31본산의 하나였다.

비록 사찰은 1950년 한국 전쟁으로 경내의 건물들이 전소되긴 하였지만, 다행스러운 사실은 사찰 관련 문헌과 기록, 또한 조선시대 이후 사찰에서 간행된 문헌들이 여러 기관에 남아 있어서 당시 사찰 출판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석왕사는 최근 북한에서도 과거 사찰의 위상과 중요성이 인식되어 복원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11년 6월에는 사찰 입구의 不二門과 曹溪門, 護持門, 雪城東樓의 복원이 마무리되기도 하였다.

한편, 석왕사에 대하여 崔應觀¹⁾은 1950년 韓國戰으로 모든 건물이 소실되기

전 사찰의 연혁과 관련 사실들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이 『略誌』의 내용은 退耕權相老가 교열을 보았다. 또한 韓國佛敎研究院²⁾에서는 석왕사의 유래를 간단히 소개하였고, 석왕사관 간행 서적은 寺刹文化研究院³⁾이 승려 문집 등 5종을 소개한 바 있으며, 尹炳泰⁴⁾에 의하여 그 일부가 조사되기도 하였다.

2. 석왕사의 연혁 및 서적 간행

2.1 연혁과 역사

석왕사의 창건 및 연혁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사찰이 위치한 지역의 행정 구역 상 명확한 지리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강원도에 속한 사찰의 행정 구역과 달리 조선시대 각종 문헌 및 사찰에서 간행된 여러 불경의 간기 상 지역명 표기는 어김없이 ‘咸鏡南道 安邊郡 雪峯山 釋王寺’라고 밝혀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행정 구역 상 과거 함경남도였던 高山郡과 安邊郡이 모두 강원도로 이속되었고, 그 시점은 광복 직후 1946년 9월이었다. 따라서 현재 강원도 高山의 釋王寺로 알려진 사찰이 조선시대의 咸鏡南道 雪峯山 釋王寺와 동일 사찰임을 밝혀둔다. 더불어 비교적 최근 발간된 여러 문헌에 나타난 북한의 국보 사찰로 금강산 表訓寺 등과 함께 언급된 강원도 釋王寺도 모두 과거 咸鏡南道 雪峯山 釋王寺를 지칭하므로, 이에 대한 착오는 없어야 한다.

2.1.1 고려 시대

석왕사의 창건 시점에 대하여 『釋王寺誌』, 『雪峯山釋王寺略誌』 및 『關北邑

1) 崔應觀 編, 『雪峯山釋王寺略誌』(京城: 朝鮮印刷株式會社, 1934).

2) 韓國佛敎研究院 編, 『북한의 사찰』(서울: 一志社, 1978).

3) 사찰문화연구원 編著, 『北韓寺刹研究』(서울: 사찰문화연구원 출판부, 1993).

4) 尹炳泰 編, 『韓國書誌年表』(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誌」, 『安邊都護府邑誌』 등 여러 사료에서는 태조 이성계의 潛邸 시 또는 고려 禑王 10년(1384)에 지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權相老⁵⁾도 『東國文獻備考』 권제49의 기록에 의거하여 ‘在咸鏡南道 安邊郡 雪峯山 太祖潛邸時建 …’이라 적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正史의 기록은 아니더라도, 이보다 앞서 고려 우왕 3년(1377)에 당시 東北面 都元帥였던 李成桂가 鄭夢周와 李和 등과 더불어 釋王寺에 대장경을 옮긴 내용을 수록한 碑文⁶⁾이 남아있다. 이에 따르면, 이성계와 정몽주 등은 왕명에 따라 함경북도 海陽 廣積寺에 있던 대장경과 佛像에 약간의 函軸을 보충하여 대장경 전질을 이루었다. 그 뒤 지금의 함경남도 安邊郡인 安邊府 雪峯山의 釋王寺에 대장경을 안치하였고, 이를 통해 임금님의 만수무강과 나라의 행복을 기원하는 밀천으로 삼고자 하였던 취지를 명기하였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석왕사의 창건 시점은 그 하한선이 고려 우왕 3년(1377) 또는 그 이전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사찰의 초창기 내역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한 목판으로 찍은 영조 37년(1761) 海源(1691-1770) 跋文本 『雪峯山釋王寺記』⁷⁾에 따르면, 석왕사의 창건을 왕조 창업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즉, 사찰의 유래는 고려 우왕 10년(1384)에 태조 이성계가 鶴城에 머무를 당시 꿈을 꾸 일화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태조는 자신의 꿈속에서 萬戶나 되는 집에서 닭이 한꺼번에 울었던 사실과 천여 채의 집에서 다듬이질 소리가 일제히 들린 것을 해몽하고자 雪峯山의 토굴에 기거하던 無學大師(自超, 1327-1405)를 찾았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그로부터 1년 뒤에 석왕사를 창건하였고, 왕조 창업도 이룩하였으며, 더불어 無學大師의 가르침도 깊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글은 四溟大師 休靜이 작성하였다.

하지만, 이 내용에 의하면 석왕사가 창건된 시점은 고려 우왕 11년(1385)으로 앞선 우왕 3년(1377)에 이미 釋王寺에 대장경을 옮긴 내용과 상치되어, 사찰의

5) 權相老, 『韓國寺刹事典(上)』 (서울: 退耕堂權相老博士全書 刊行委員會, 1994), 980.

6) 許興植, 『韓國金石全文 - 中世下』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4), 1194. “釋王寺藏經碑 東北面都元帥完山府 ….”

7) 『雪峯山釋王寺記』 제1장 앞면 제1행-제3장 앞면 제4행. “我太祖康獻大王洪武十七年 ….”

창건 시기에 대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이와 같은 혼란의 요인을 소급하여 살펴보면, 『雪峯山釋王寺記』에 나타난 休靜의 『寺記』가 작성된 경위에 주목할 수 있다. 즉, 휴정이 석왕사를 지날 때 그곳 사람들이 『寺記』의 작성을 요청하였던 바, 이들의 당부에 응해 그 자리에서 『寺記』를 써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글이 작성된 배경적 정황을 감안한다면, 사찰의 정확한 창건 시기에 대한 일부 착오는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휴정의 『寺記』가 작성된 시점 역시 사찰이 건립된 지 200여년이 지난 四溟大師(1544-1610)가 79세 되던 선조 31년(1598) 戊戌이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사료에서 밝힌 사찰의 창건 由緒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우나, 현 시점에서는 두 기록을 제외한 사찰 관련 사료 또는 석왕사의 창건이나 초창기 연혁을 수록한 문헌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사찰이 세워진 시점이 고려 말이었으므로, 고려 시대 正史의 기록에는 사찰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고, 그나마 『왕조실록』 태종조의 기록이 이른 편에 속한다.

한편, 태조 潛邸 시 완성된 석왕사의 규모를 일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雪峯山釋王寺記』의 승려 海源이 직접 쓴 <後跋>을 참고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성계가 無學大師의 조언을 받들어 應眞殿을 세웠고, 五百聖齋를 올린 사실을 기록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시기 天真堂과 眞歇堂 및 仁智寮와 龍飛樓 등을 함께 營繕하였던 사실⁸⁾을 밝혀 창건 당시부터 비교적 규모를 갖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으로 崔應觀⁹⁾은 冥府殿과 應眞殿 모두 雪悟大師에 의해 고려 우왕 12년(1386)에 창건된 것으로 비정하고 있어서, 그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영조 7년(1731) 봄 海源이 작성한 <釋王寺觀音殿重創記>에는 사찰에 속한 觀音殿 또한 고려 말 창건 당시부터 있었던 건물¹⁰⁾이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8) 『雪峯山釋王寺記』 제9장 앞면 <後跋> 제2행-제4행.

“… 遂起應眞殿因設五百聖齋所爲天真眞歇二堂仁智寮龍飛樓 / 等皆一時之營繕也 …”

9) 崔應觀 編, 『雪峯山釋王寺略誌』(京城: 朝鮮印刷株式會社, 1934), 6.

10) 純祖 21년(1821) 刊 木板本 『天鏡集』 卷中 <文> 제3장 뒷면 제7행-제10행.

“… 若考其濫觴以記其覆篑則此 / 寺洪武十七太祖大王龍潛時創建也此堂亦一 / 時而并焉則其來久矣興廢亦非一二而未有記徵 / …”

2.1.2 조선 시대

여느 사찰과 마찬가지로 조선 시대 석왕사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사찰이 태조 이성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창건된 이후, 대웅전을 비롯한 관음전 등 여러 건물들이 수차례 무너지거나 화재로 소실되는 등 改修와 중창이 반복되었다.

여기서는 각종 사료, 이를테면 실록이나 邑誌, 事蹟類 또는 文集과 碑文 등에 나타나는 사찰 관련 기록을 연대순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사찰에 속한 건물 중 觀音殿과 冥府殿, 應眞殿 및 天真堂, 眞歇堂 그리고 仁智寮와 龍飛樓는 사찰의 창건 시기인 고려 말부터 있었던 건물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하지만 이러한 건물과는 별개로 사찰의 가장 큰 법당으로 大雄殿은 태조 3년(1394) 임금을 따라 위화도 회군에 기여한 승려 神照¹¹⁾가 왕명에 의해 창건하였다¹²⁾고 밝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내용이 승려 海源의 문집인 『天鏡集』 卷中 <釋王寺法堂重修記>에도 나타난다. 즉, 석왕사의 법당에는 大雄寶殿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었고, 殿內에는 釋迦, 彌勒, 藥師의 三如來金像이 있었다¹³⁾고 밝혔다. 또한 이 건물은 지어진 지 300여년이 넘었다 하여, 그 시기는 대략 14세기 말로 태조 3년(1394)에 지어졌다는 기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밖에 대웅전뿐 아니라 태조 3년(1394)에는 海藏殿이 당시 주지였던 性浩에 의하여 창건된 것을 비롯하여, 尋劍堂, 壽君堂, 泛鍾樓 등도 함께 세워졌다.¹⁴⁾ 그리고 정확한 시기는 밝히지 않았으나, 경내의 管應堂 또한 태조의 龍興之時에 건립되었다¹⁵⁾고 하였으므로, 14세기 말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은 이후 正德, 萬曆, 崇禎 연간에 각각 한번씩 重修되었고, 영조 1년(1725)에는 寶月山人

11) 천태종 승려로 생몰년은 알 수 없고, 고려 우왕 9년(1383) 李崇仁인 쓴 『神勒寺 藏經閣記』에 이름이 올라 있다. 『고려사』에 의하면, 공양왕이 萬義寺의 주지로 임명한 기록이 나타난다.

12) 崔應觀 編, 『雪峯山釋王寺略誌』 (京城: 朝鮮印刷株式會社, 1934), 5.

13) 『天鏡集』 권중 <文> 제1장 앞면 제3행-제5행.

14) 『雪峯山釋王寺略誌』, p.7.

15) 『天鏡集』 卷中 <文> 제7장 뒷면 제1행-제3행.

密嚴의 주관으로 재차 대대적인 보수의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왕조실록」에 따르면 태조께서 觀音窟을 창건하였다¹⁶⁾는 기록이 전하는데, 이로 미루어 태조 잠저 시 세운 觀音殿과 동일 건물로 여겨지기도 한다.

태종 元年(1401)에는 興福樓가 세워졌고,¹⁷⁾ 또한 같은 해(1401) 5월에는 태종이 명하여 석왕사의 서쪽에 궁을 짓도록 하였다. 궁의 규모는 25칸에 달하며, 초기 工役에 동원된 인원은 工匠과 승려 등 80명이었다. 여기에 督僧軍 50명이 충원되었고, 필요한 철물은 다른 고을에서 조달하기도 하였다.¹⁸⁾

세종 25년(1443) 8월에는 왕명으로 觀音窟이 중창¹⁹⁾되었으며, 성종 1년(1470)에는 冥府殿이 창건되었다. 이후 명부전은 효종 1년(1650)과 영조 22년(1746)에 각각 중수²⁰⁾되었다. 하지만 명부전에 대해서는 「櫟山集」이나 「釋王寺略誌」 등 다른 사료에서 태조 잠저 시부터 있었던 건물로 밝혀, 「天鏡集」의 내용과 일치되지 않는다.

16세기 접어들어 명종 6년(1551) 봄에는 관음전이 중창²¹⁾되었고, 정확한 시기를 밝히지 않았으나 만력 연간에는 管應堂이 중수²²⁾되기도 하였다.

그 뒤 17세기에도 선조 37년(1604)에 승려 熙贊에 의하여 대웅전이 중수²³⁾되었고, 인조 19년(1641) 봄에는 碧巖和尚이 楓谷大師에게 대웅전 중수의 뜻을 내비쳤다.²⁴⁾ 당시 대웅전 중건의 실무를 추진하기 위해 楓谷大師는 사찰에 거주하는 승려들과 목수 覺敏을 추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중수 업무의 시작은 이듬해(1642) 봄이 되어 시작²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마무리는 인조 22년(1644)에 일단락되어²⁶⁾ 창건 이후 세 번째 중수가 되는 셈이다.

16) 「世宗實錄」 권제101 세종 25년 癸亥 8월 戊子條.

17) 「雪峯山釋王寺略誌」, p.8.

18) 「太宗實錄」 권제1 태종 1년 신사 5월 己酉條.

19) 「世宗實錄」 권제101 세종 25년 癸亥 8월 戊子條.

20) 「天鏡集」 卷中 <文> 제10장 앞면 제3행-제4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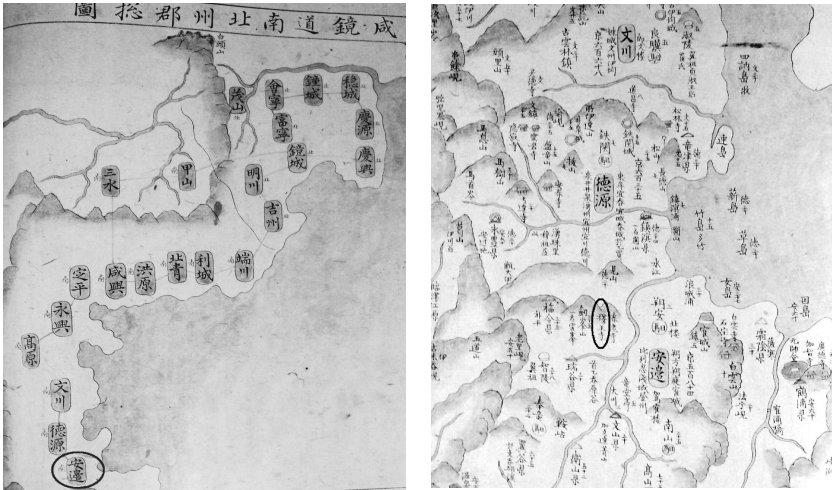
21) 「天鏡集」 卷中 <文> 제4장 앞면 제1행.

22) 「天鏡集」 卷中 <文> 제7장 앞면 제2행-제4행.

23) 「雪峯山釋王寺略誌」, p.5.

24) 「天鏡集」 卷下 <文> 제17장 앞면 제6행-제8행.

25) 「翠微大師詩集」 雜著 제35장 앞면 제5행.



<그림 1> 17세기 寫成 추정 「東輿備攷」에 수록된 함경남도 安邊 및 석왕사

한편, 인조 26년(1646) 戊子에는²⁷⁾ 석왕사 大鐘이 주조되었다. 大鐘의 주조 업무는 승려 瑩機와 智暉가 주관하고, 시주로 金孝男과 장인으로 元敏, 元應 등이 참여하였다. 大鐘은 완성된 뒤 사찰의 泛鍾閣에 걸어두었다. 또한 정조 14년(1790) 8월 21일에는 중앙으로부터 비문이 내려와 석왕사에 閣을 짓고 비를 세우는 工役이 시작²⁸⁾되기도 하였다. 정조는 이러한 일에 각별히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부하였고, 공역에 드는 제반 비용은 모두 관청의 곡식으로 충당²⁹⁾할 것을 명하였다. 이 일은 정조 15년(1791) 2월에 일단락³⁰⁾되었고, 그에 대한 포상으로 같은 해(1791) 4월에 정조는 지방관 韓光縵와 趙啓를 加資³¹⁾하였다.

26) 고종 25년(1888) 刊 木活字本 『樸山集』 권하 제6장 뒷면 『釋王寺大雄殿重修記』.

27) 『雪峯山釋王寺略誌』, p.47.

28) 『備邊司謄錄』, 정조 14년 庚戌 八月 二十一日條.

“釋王寺 古蹟載於國乘而國初御筆鏤板奉安 … 欲撰記豎碑文當親撰 建閣立碑 依先朝近例 今該道措備 而待文字下送 卽爲始役事 ….”

29) 『正祖實錄』, 권제31 정조 14년 庚戌 8월 21일 己巳條.

30) 『日省錄』, 정조 15년 辛亥 2월 8일 癸丑.

31) 『正祖實錄』, 권제32 정조 15년 辛亥 4월 辛酉條.

그리고 이 해(1791) 7월에는 工役을 진두지휘한 함경도 관찰사李文源에게 특별히 續田 100결과 공명첩 300장, 노비와 鐵券을 추가로 내려주기도³²⁾ 하였다. 이 밖에 정조는 비석을 세운 뒤 畫工을 사찰에 보내어 무학대사의 像을 모사해 오도록³³⁾ 하는 등 석왕사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순조 10년(1810) 8월에는 雪峯山의 폭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하여 사찰의 御室閣과 龍飛樓 등 일부 건물이 무너지는 악재³⁴⁾를 겪었다. 당시 산사태로 말미암아 민가와 여러 명의 백성들이 희생되었으며, 이 재난의 수습을 돕기 위해 임금 순조는 별도로 恤典을 거행하고 지역 주민의 身還布를 탕감해주는 조치를 지시하였다. 그리고 수해 복구가 한창 진행될 시점인 같은 해(1810) 9월에는 함경감사 趙德潤은 재차 중앙에 啓를 올려, 자세한 피해 상황과 사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³⁵⁾하였다. 이에 대하여 순조는 仁智寮와 龍飛樓 등을 옛날 모습 그대로 복원하고, 물자와 인력 등을 요청한대로 지원하도록 명하였다.

고종 1년(1864)에는 泛鍾閣이 중수³⁶⁾되었으며, 고종 3년(1866) 1월에는 의정부에서 계를 올려 석왕사의 龕宮正殿이 무너진 사실³⁷⁾을 임금에게 아뢰기도 하였다. 더불어 같은 해(1866) 7월에는 正殿의 서쪽 城築을 새로 짓고, 典祀廳과 石臺 등을 新建³⁸⁾하였다. 당시 소요된 비용은 모두 3,596兩이었다. 또 고종 6년(1869)에는 壽君堂이 중건³⁹⁾되었고, 고종 16년(1879) 3월에는 큰 비로 인해 사찰의 正殿과 御製碑閣이 기울어져 무너진 곳이 발생하여, 물력을 넉넉하게 지급하고 수리 비용을 보조해 줄 것을 임금이 명⁴⁰⁾하였다. 또 대한제국기 고종조인 光武 9년(1905)에는 대웅전의 일부 보수⁴¹⁾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32) 『日省錄』 정조 15년 辛亥 7월 18일 辛卯.

33) 『日省錄』 정조 16년 壬子 4월 24일 壬子.

34) 『純祖實錄』 권제13 순조 10년 庚五 8월 19일 辛丑條.

35) 『日省錄』 순조 10년 庚五 9월 23일 乙亥.

36) 『櫟山集』 卷下 <詩> 제9장 앞면 제1행-제2행.

37) 『承政院日記』 고종 3년 丙寅 1월 3일 癸亥條.

38) 고종 3년(1866) 寫 필사본 『釋王寺修理形止記』 제1장-제3장.

39) 『櫟山集』 卷下 <詩> 제19장 앞면 제1행.

40) 『承政院日記』 고종 16년 己卯 3월 25일 己巳條.

41) 『雪峯山釋王寺略誌』, p.5.

이 밖에도 사찰 내 존치되었던 건물별 중창 이력은 『雪峯山釋王寺略誌』로 보완할 수 있고, 문집이나 碑文 등에 나타나는 누락분의 기록을 추가하여 석왕사의 주요 연혁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고려 및 조선시대 석왕사 주요 연혁

연도	내용	비고
1377. 이전	釋王寺 存置(禱王 3년(1377)에 李成桂, 鄭夢周, 李和가 大藏經을 석왕사에 옮김)	許興植 『韓國金石全文』 〈釋王寺藏經碑〉
1384.	觀音殿 創建	『天鏡集』
1386.	冥府殿, 應眞殿, 天真堂, 眞歇堂, 仁智寮, 龍飛樓 營繕	『雪峯山釋王寺記』 『釋王寺略誌』
1394.	神照大師에 의해 大雄殿 創建, 海藏殿(性浩), 尋劍堂, 壽君堂, 泛鍾樓 창건	『天鏡集』 『釋王寺略誌』
太祖 年間	管應堂	『天鏡集』
14세기 말	觀音窟 창건	『王朝實錄』
1401.	興福樓 創建	『釋王寺略誌』
1401. 05	석왕사의 서쪽에 25칸 宮을 지음	『王朝實錄』
1443. 08	觀音窟 重創	『王朝實錄』
正德 年間	管應堂 重修	『天鏡集』
1551. 春	觀音殿 重創	『天鏡集』
萬曆 年間	管應堂 重修	『天鏡集』
1604.	大雄殿 重修(熙贊)	『釋王寺略誌』
崇禎 年間	管應堂 重修	『天鏡集』
1641. 04	觀音殿 火災	『天鏡集』
1642. 春	碧巖大師 重修 업무 시작	『翠微大師詩集』〈雜著〉
1644.	大雄殿 三創 일단락(碧巖禪師)	『櫟山集』, 『釋王寺略誌』
1646.	釋王寺 大鐘 鑄造	『釋王寺略誌』
1650.	冥府殿 重修	『天鏡集』
1656. 夏	普光大殿 重修	『翠微大師詩集』〈雜著〉
1725.	管應堂 重修	『天鏡集』
1728.	大雄殿 四創, 五百羅漢 改造	『天鏡集』, 『釋王寺略誌』
1731. 秋	觀音殿 重修	『天鏡集』
1746.	冥府殿 三創	『天鏡集』
1790. 08	사찰에 閣을 짓고 碑를 세우는 工役이 시작	『備邊司謄錄』 『王朝實錄』
1791. 02	어필을 내려받고, 碑文을 세우는 공역 완료	『日省錄』
1791. 04	비석 건립의 공으로 관료 2명 포상	『承政院日記』, 『王朝實錄』

연도	내용	비고
1791. 07	비석 건립의 공으로 함경도관찰사李文源 추가 포상	『日省錄』
18세기 말	冥府殿 重修	『櫟山集』
1810. 08	산사태로 인하여 御室閣, 龍飛樓 무너짐	『純祖實錄』
1864.	泛鍾閣 重修	『櫟山集』
1866. 01	龕宮正殿이 무너짐	『承政院日記』
1866. 07	正殿 서쪽 城築 신축, 石臺 및 典祀廳 25칸 등 新建	『釋王寺修理形止記』
1869.	壽君堂 重建	『櫟山集』
1879. 03	正殿과 碑閣이 큰 비로 훼손	『承政院日記』
1905.	大雄殿 補修	『釋王寺略誌』

2.1.3 근대 이후 석왕사

왕조 말기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 사찰계 또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대외적으로 열강들의 침략이 지속되었고, 연이어 일제의 식민 통치가 이어졌다. 이와 같이 혼란한 상황 속 1911년 6월에는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사찰령 시행규칙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의든 타의든 전국의 사찰은 30본산 제도⁴²⁾에 의하여 본사와 말사의 형태로 정비되었다.

이 시기에도 석왕사는 그 위상이 하락되지 않았고, 강원도 月精寺와 함흥의 歸州寺 등과 더불어 30본산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인근 강원도 高原郡의 梁泉寺와 高原郡 梁泉寺 등 48개 말사를 관장하였던 대찰의 명맥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당시 사찰의 이력으로 1917년 석왕사의 말사인 함경북도 慶源郡의 新興寺가 폐지⁴³⁾되었고, 1920년 봄에는 석왕사의 雪城東樓가 중건되었다. 雪城東樓 중창 불사는 사찰의 주지인 淸月長老가 주도하여 기와를 새로 깔고, 石垣 즉 돌담을 새로 쌓은 등 모두 4,687圓의 기부금으로 이루어졌다.⁴⁴⁾

42) 이후 1924년 11월 31본산제로 변경되었음. 이 제도는 조선 불교계를 통제하기 위해 사찰의 재산권이나 주지 임명권 등을 침략부가 장악한 조치로, 다분히 우리 불교의 고유한 전통을 말살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된 정책이었다.

43) 『朝鮮總督府官報』 1917년 7월 6일.

44) 權相老 著, 『韓國寺刹事典(卷上)』 (서울: 梨花文化出版社, 1994), 982.

또한 1926년 4월에는 석왕사의 眞歇堂 내에 불교 교육을 목적으로 佛敎專門院을 설립⁴⁵⁾하였다. 1934년에는 직속 암자로 內院庵과 香積庵 등 5곳이 있었다. 그리고 사찰이 위치한 本堂의 건물로는 大雄殿, 海藏殿, 八相殿 등 殿 8채, 山神閣이나 登岸閣 등 閣이 7채, 尋劍堂이나 眞歇堂 등 堂 5채, 泛鍾樓와 興福樓 등 樓閣 6채, 不二門 및 曹溪門 등 門이 6門 있었다. 게다가 仁智寮와 延賓館, 穀物庫 등 모든 건물을 합치면 41채⁴⁶⁾에 달해 당시 사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1940년 7월에는 사찰 내에 불교 포교를 위한 포교소가 설치⁴⁷⁾되었고, 2년 뒤(1942) 8월에는 인근 淸津에 석왕사 포교당이 추가로 설립⁴⁸⁾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근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를 확장하였고, 사찰 소속 말사의 범위도 함경남도 뿐 아니라 멀리 강원도 上院庵까지 관장하였던 30본산의 핵심 사찰이었으나, 전란으로 인하여 소실된 것은 한 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과거 건물들은 전소되어 남아있지 않지만, 일제 강점기 때 발행된 엽서 중 사찰의 全景과 조선 숙종조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暎月樓의 사진 등이 남아 있다.



<그림 2> 일제 강점기의 석왕사 전경 및 暎月樓

45) 『東亞日報』 1926년 4월 25일.

46) 『雪峯山釋王寺略誌』, pp.48-49.

47) 『朝鮮總督府官報』 1940년 7월 4일.

48) 『朝鮮總督府官報』 1942년 8월 20일.

이처럼 戰禍로 불타 없어진 석왕사는 비교적 최근 복원 사업이 추진되었다. 즉 2008년 10월의 기사⁴⁹⁾에 따르면, 사찰은 평양건설건축대학의 건축설계 센터와 민족건축설계연구소의 협력으로 문헌고증을 바탕으로 복원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 결과 2011년 6월에는 입구의 不二門을 비롯하여 曹溪門, 雪城東樓 등 사찰 건물 일부가 복원된 모습⁵⁰⁾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2.2 조선시대 사찰의 위상 및 서적 간행

2.2.1 사찰의 위상

조선 시대 석왕사는 태조 재위와 더불어 왕실의 願堂으로 지정되었고, 조선 후기까지 지속적인 왕실의 보호를 받았다. 그 일환으로 개국 초 太祖 때를 기점으로 석왕사에서는 고려 왕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水陸齋, 三聖齋, 菩薩齋 등 국가 규모의 크고 작은 불사들이 자주 선행되기도 하였다. 일례로 태조 4년(1395)에 이미 개국의 난업 달성 시 희생된 영혼을 달래기 위한 수륙재를 사찰에서 선행하였다. 또 태조 7년(1398) 8월에는 임금 이성계가 자신의 三代祖를 추모하는 三聖齋를 석왕사에서 행⁵¹⁾하여 사찰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정종 1년(1399) 1월에는 사찰의 冥府殿과 應眞殿을 세운 인물로 알려진 승려 雪悟가 중심이 되어 금강산과 안변의 석왕사에서 菩薩齋를 베풀고, 200여명을 供饋하기도 하였다. 당시 소요되는 음식과 물자는 江原道 監司가 조달⁵²⁾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태조가 석왕사에 가진 애착을 표현한 일화가 있다. 즉, 建文 辛巳年(1401)에는 친히 車馬를 이끌고 사찰을 방문하여, 소나무와 배나무를 심기도⁵³⁾하였다. 또한 같은 해(1401) 5월에는 당시 임금이었던 태조의 5번째

49) 『민족21』 제91호 2008년 10월 21일.

50)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엮음. 『북한의 전통사찰 (10) 강원도』 (서울: 養士齋, 2011), 73-109.

51) 『太祖實錄』 권제14 태조 7년 8월 壬戌條.

52) 『定宗實錄』 권제1 정종 1년 1월 甲戌條.

53) 『雪峯山釋王寺記』 제9장 앞면 <後跋> 제7행-제9행. “... / 建文辛巳車駕親臨植松于洞種

아들 태종(李芳遠)이 사찰에 궁을 짓도록 하고, 인력을 지원하였던 실록 기록도 앞서 살펴보았다.

한편, 세종 6년(1424)에는 사찰의 규모를 일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찰에 원래 속해 있던 토지가 200결이었고, 거느린 승려의 수는 120명⁵⁴⁾이었다는 기록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기록을 미루어 석왕사는 같은 시기 禪·敎宗 사찰을 통틀어 경기도 楊州 檜巖寺와 강원도 고성 楡岾寺 등과 더불어 수위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 세종 7년(1425) 중앙에서는 사찰의 재산이나 곡식의 출납을 담당하는 관원을 직접 임명하기도 하였고, 이를 監守하는 인원 10명을 친히 정하기도⁵⁵⁾ 하였다. 또한 효종 9년(1658) 4월에는 예조에서 啓하기를 列聖의 位版을 정결한 곳에 보관할 것을 강조하면서, 春川의 淸平寺와 古城의 楡岾寺 등과 더불어 安邊 釋王寺에 정히 둘 것⁵⁶⁾을 아뢰었다. 이 밖에도 숙종 34년(1708)에는 태조가 어제 어필을 사찰에 남긴 이후, 숙종 또한 그런 뜻을 기리고 300년이 지난 시점에서 태조의 글에 보태어 친필의 비문⁵⁷⁾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밝힌 몇몇 사례뿐 아니라 석왕사에 대한 지원 정황 및 특별한 예우에 대한 기록은 조선 후기까지 빈출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 초기 이후 안정된 상태를 유지되어 오던 석왕사는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마냥 평안치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경종 4년(1724) 7월에는 유생들이 사찰을 侵虐하여 사찰의 승려들은 모두 도망가고, 사찰이 폐할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이에 호조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중앙에 아뢰고, 監色과 張厚楸, 李丹植 등에 대해서도 죄를 물어 형을 정하도록⁵⁸⁾ 제하였다. 또한 영조 21년(1745) 11월 10일에는 사찰의 승려 彩鵬和

梨 / 于園至今松木之禁斷玄梨之進 / 御者亦由其時之聖教也 ….”

54) 『世宗實錄』 권제24 세종 6년 甲辰 4월 庚戌條.

55) 『世宗實錄』 권제27 세종 7년 乙巳 3월 己巳條.

56) 『承政院日記』 효종 9년 무술 4월 28일 甲午.

57) 朝鮮總督府 編, 『朝鮮金石總覽(영인본)』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6), 1053, 숙종 34년(1708) 刻 <釋王寺事蹟碑>.

58) 『承政院日記』 경종 4년 甲辰 7월 11일 壬子.

尙과 能和尚의 비위로 이들에 대한 수배가 내려지기도 하였고,⁵⁹⁾ 8일 뒤인 영조 21년(1745) 11월 18일에는 두 和尚이 捕盜大將 鄭壽松에게 잡혀와 인정전에서 임금에게 親鞫을 당하기도⁶⁰⁾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도 잠시, 정조는 다시 사찰에 비석을 세우도록 명⁶¹⁾하고, 친히 碑文을 써주기도 하였고,⁶²⁾ 토지와 노비 및 말을 내리며 석왕사가 속한 지방관의 포상⁶³⁾하기도 하였다.

또한 조선 말기인 순조와 고종조에도 어김없이 중앙에서 사찰의 중수에 드는 비용이나 물자를 대고, 공명첩을 내리는 등 임금의 개입 정황⁶⁴⁾을 엿볼 수가 있다. 순종 또한 석왕사에 친히 방문하여 하루를 묵기도 하였고,⁶⁵⁾ 어필각과 태조가 직접 심었다는 소나무를 살펴보았다.⁶⁶⁾ 더불어 사찰이 속한 안변 군수에게 돈을 하사⁶⁷⁾하고, 碑閣을 건출하는 보조금을 내리는⁶⁸⁾ 등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사찰을 비호한 기록이 계속 나타난다.

2.2.2 서적 간행

석왕사는 개창 초기부터 왕실의 직접적인 후원을 입은 가운데 일찍부터 사찰의 입지와 그 세력을 공고히 하였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태조 재위 시에 경내 여러 건물들의 창건 기록과 태종 시에도 사찰에 추가로 匾을 짓는 등 인력과 물자가 꾸준히 지원된 정황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세종조에도 어김없이 사찰에 곡식을 내리거나, 건물을 새로 중수하는 등 왕실의 후원 기록이 지속적으로

59) 『英祖實錄』 권제62 영조 21년 乙丑 11월 丁丑條.

60) 『承政院日記』 영조 21년 乙丑 11월 18일 乙酉.

61) 『正祖實錄』 권제31 정조 14년 庚戌 8월 己巳條.

62) 『正祖實錄』 권제32 정조 15년 辛亥 4월 辛酉條.

63) 『正祖實錄』 권제32 정조 15년 辛亥 5월 庚辰條.

64) 『純祖實錄』 권제13 순조 10년 庚五 10월 16일 丁酉條.

65) 『純宗實錄』 부록 권제8 순종 10년 丁巳 5월 14일.

66) 『純宗實錄』 부록 권제8 순종 10년 丁巳 5월 15일.

67) 『純宗實錄』 부록 권제8 순종 10년 丁巳 5월 15일.

68) 『純宗實錄』 부록 권제8 순종 10년 丁巳 6월 2일.

확인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황으로 판단컨대 사찰은 창건 초기부터 15세기까지는 國庫의 후원에 힘입어 부족함 없는 사원 경제를 꾸려나갔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안정된 사찰의 기반 하에서는 일찍부터 서책의 수요나 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석왕사에서 이루어진 서책의 유통이나 간행 사례는 기록이나 실물을 통틀어 16세기 중엽에 이르러 처음 확인된다. 즉, 조선 중종 36년(1541) 『蒙山和尚六道普說』의 판각이 사찰에서 간행된 판본의 가장 이른 사례이다. 이를 필두로 사찰에서는 16세기 4종, 17세기 5종, 18세기 6종, 19세기 3종의 모두 18종에 달하는 사적류, 불경, 불가 문집을 조선 말기까지 꾸준히 찍어 내었다.

특히, 이렇게 간행된 서적 중 사적류나 사찰 소속 승려의 문집들은 소실된 사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즉, 현재는 불타 없어진 석왕사에 대하여 남아 있는 사료는 正史의 몇몇 기록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문헌에는 과거 사찰의 창건이나 건물 이력 및 사찰 관련 일화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의 중요성은 당시 사찰의 입지나 주변 상황까지도 소급하여 살펴볼 수 있는 실마리를 안겨준다는 점이다.

더불어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내 일부 소장처에서 석왕사판으로 제시하고 있는 명종 7년(1552) 刊 『禪宗永嘉集』과 영조 23년(1747) 刊 『法集別行錄節要私記解』에 대하여도 몇 가지 사항을 부기해 둔다. 먼저 전자는 권말의 간기⁶⁹⁾에 따르면, 명종 7년(1552) 임자년 봄 2월에 嘉靖 壬子 봄에 구룡산 道成庵에서 새긴 것은 석왕사에 옮겨 두었다. 즉 새긴 판목을 사찰끼리 옮겨 보관하거나 관리한 사례이다. 이 판은 인근 高原郡의 九龍山 道成庵版이다. 후자 또한 영조 23년(1747) 6월에 吉州 成佛山 吉祥菴에서 『法集別行錄節要私記解』를 개간하여, 안변의 석왕사로 移鑄⁷⁰⁾하였으므로, 이 『節要』는 吉祥菴版으로 보아야 한다.

69) 명종 7년(1552) 刊 『禪宗永嘉集』 卷下 [제48장] 卷末 刊記.

“… 嘉靖壬子春二月 / 咸鏡道高原郡九龍山道成庵 / 開刊移鑄于釋王寺.”

70) 영조 23년(1747) 刊 『法集別行錄節要私記解』 권말 간기 제31장 뒷면. “乾隆十二年丁卯六月日咸鏡道吉州成佛山吉祥菴 / 開刊移鑄于安邊府雪峯山釋王寺.”; 尹炳泰, 『韓國書誌年表』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04.

이 밖에도 영조 49년(1773)에 판각된 李佐薰(1753-1770)⁷¹⁾의 시문집인 『煙巖詩集』 또한 권말의 간기에는 ‘癸巳冬安邊府開刊板本 / 藏于釋王寺 合三十六板’이라고 되어 있어, 안변도호부에서 간행한 官版의 범주로 두어야 한다. 이는 권두에 洪君平이 쓴 識文에도 李佐薰이 요절한 것을 애통하게 여겨, 아버지 李德輝가 자신이 고을 員으로 있던 安邊都護府에서 아들의 遺詩 100편을 모아 목판으로 간행한다⁷²⁾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 이러한 사실이 재차 확인된다.

한편, 조선시대에 간행된 古本과 景판들 중 일부는 20세기 초반까지 사찰에 계속해서 보관되어 있었다. 이 내용은 한국 전쟁으로 석왕사가 전소되기 전인 1934년 편찬된 『雪峯山釋王寺略誌』에 사찰 보관 景판과 인본의 일부를 採記해 두어 확인 가능하다. 수록된 내용에 따르면, 20세기 초 석왕사에는 다음과 같이 經板 33종과 印本 5종이 소장되어 있었다.

<표 2>에 제시된 33종의 景판 가운데 주목되는 점이 있다. 즉, 당시 사찰에 소장된 景판 중에 현존하는 석왕사 판본으로 조사된 18종 가운데 15종이 중복된다는 것이다. 전존본 중 1934년 사찰에 목판이 없었던 인본은 『蒙山和尚六道普說』, 『佛說大目連經』, 『櫟山集』의 3종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은 20세기 초까지 사찰에서는 16세기 이후 자체적으로 간행한 목판 대다수를 온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남아 있는 景판의 종류를 일별하면, 사찰의 강원교재로 활용되는 四教科와 四集科 經전 대부분이 소장되어 있다는 점 또한 특기할 만하다. 이는 규모를 갖춘 사찰로 석왕사는 승려들의 교육이나 강학 활동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던 면학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사례이다. 그리고 『預修集』, 『恩重經』, 『志盤文』, 『中禮文』 등 현존본이 남아 있지 않은 10여종의 經전도 다분히 석왕사에 판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찰 간 판목의 교류 사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간행 시기 또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석왕사판의 예외 사항으로 두었다.

71) 李德輝의 아들이자, 18세에 요절한 조선 후기 비범한 문인이자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72) 영조 49년(1773) 刊 『煙巖詩集』 제8장 뒷면 제2행-제4행.

“吟咏數一百篇將界劄剛使 / 後之人知有如此才而無其命其忠絕 / 可悲也凡人之才或有 ….”

<표 2> 석왕사 소장 경판 및 古本 (1934년 기준)

구분	판명(서명)	수량	비고	구분	판명(서명)	수량	비고
경판	法華經	107판	·	경판	百法論	9판	·
	金剛經	1판	大文		中禮文	34판	·
	彌陀經	18판	·		雲水集	8판	·
	恩重經	12판	·		諸般集	27판	·
	刊定記	105판	·		志磐集	24판	·
	起信論	5판	·		預修集	14판	·
	心性論	19판	·		喚惺集	10판	·
	眞言集	13판	·		天鏡集	42판	·
	畫千手	4판	·		書狀	29판	·
	金剛經	14판	五家解		釋王事蹟	6판	·
	都序	19판	·		烟巖集	36판	·
	節要	19판	·		白首文	11판	·
	禪要	14판	·		類合	10판	·
	五宗綱要	5판	·		梁氏家乘	12판	·
	禪家龜鑑	13판	·		家乘附錄	13판	·
初發心自警	8판	·	先世行狀	13판	·		
結手文	26판	·					
합계	33종 699판						
구분	판명(서명)	수량	비고				
인본	釋王事蹟	1책	先祖 31年 戊戌寫				
	祈福偈	1책	正祖 19年 乙卯刊				
	御製詩	1책	仁祖 9年 信眉 義昌君玗編集並書				
	北道陵殿誌	3책	英祖 24年 丁卯 編纂				
鶴城邑誌	1책	純祖帝 隆熙 4年 庚戌 謄寫					
합계	5종 7책						

이 밖에도 석왕사에서 간행된 서적 중 한 가지 부언할 만한 자료로 18세기 중엽에 간행된 사찰의 창건 및 내력을 밝힌 『雪峯山釋王寺記』가 있다. 이 판은 영조 34년(1758)부터 편찬이 시도되었고, 권말에 수록된 승려 海源(1691-1770)의 발문에 따르면, 영조 37년(1761)에 간행이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영조 37년(1761)에 인출된 판본은 현재 남아있지 않고, 그 뒤 순조 6년(1806) 여름 승려

景昨가 재차 필사하여 간행한 판이 일부 기관에 전하고 있어서, 당시의 간행 정황을 기록으로 소급하여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 事蹟은 동일 판으로 단정지을 수 없으나, 영조 37년(1761) 간행된 이후 몇 차례 더 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조 11년(1787) 함경감사가 올린 계문에 따르면, 석왕사의 사적이 상세하고 빠진 부분이 없으니, 인출하여 중앙으로 올리겠다는 기록⁷³⁾ 등이 보여지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雪峯山釋王寺記』는 1761년과 1787년, 1806년 등 적어도 3번 이상 인출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3회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간행되었는지는 현재 순조 6년본(1806)만 전하고 있으므로 단언하기 어렵다.

석왕사는 조선 시대 이후 수차례의 화재 기록이 전하며, 20세기 한국 전쟁 때에는 사찰의 대부분이 전소되었다. 물론, 전란 당시에는 수 세기 동안 잘 보관되어 온 <표 2>에 밝힌 경판과 인본들도 戰禍로 모두 소실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16세기 이후 사찰에서 간행되었던 불서 판본들은 새겨진 뒤 사찰의 신도 및 다른 사찰이나 소장처에 분급되었던 탓에, 현재까지 간행된 전체 판본은 아니더라도 상당수 인본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이를 통해 한때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석왕사의 출판 활동을 소급하여 추정해 볼 수 있기도 하다.

3. 간행 불서의 현황

3.1 간행 현황

여기서는 각종 문헌 및 서지 자료, 소장처의 목록 등에서 확인되는 석왕사 간행 불서의 현황을 개관하여 보았다. 후속 작업으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고서 소장처에서 확인되는 석왕사판 목록을 조사하고, 접근 가능한 자료들

73) 『承政院日記』 정조 11년 4월 13일 庚戌條.

은 실시하였다. 이에 석왕사에서 간행되었거나 현재까지 남아있는 석왕사판 불서의 전체 현황을 밝히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소장처의 석왕사판 불서 현황

연번	연도	서명	소장처	비고
1	中宗 36, 嘉靖 20(1541)	『蒙山和尚六道普說』 1책 (完)	국중	·
2	中宗 39, 嘉靖 23(1544)	『法華靈驗傳』 2권 1책 (完)	동국대, 서지연표	·
3	明宗 1, 嘉靖 25(1546)	『佛說大目連經』 1책 (完)	국중	·
4	宣祖 7, 萬曆 2(1574)	『勸供諸般文』 2권 2책 (完)	국중	·
5	仁祖 10, 崇禎 5(1632)	『妙法蓮華經』 3권(권1-3) 1책 (缺)	동국대, 청분실서목	·
6	仁祖 11, 崇禎 6(1633)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1책 (完)	朝鮮舊書考, 고려대, 계명대, 한중연	·
7	仁祖 11, 崇禎 6(1633)	『誠初心學人文』 1책 (完)	한중연	·
8	仁祖 11, 崇禎 6(1633)	『高峰和尚禪要』 1책 (完)	국중, 고려대, 규장각	·
9	仁祖 12, 崇禎 7(1634)	『金剛般若波羅密經』 2권 2책 (完)	고려대, 동국대, 국중	·
10	英祖 25, 乾隆 14(1749)	『禪門五宗綱要』 1책 (完)	고려대, 규장각, 국중, 계명대, 동국대	·
11	英祖 26, 乾隆 15(1750)	『性相通說』 2권 1책 (完)	규장각, 국중	·
12	英祖 27, 乾隆 16(1751)	『喚惺詩集』 1권 1책 (完)	동국대	·
13	英祖 28, 乾隆 17(1752)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 10권 4책 (完)	규장각, 동국대	重刊
14	英祖 29, 乾隆 18(1753)	『佛說阿彌陀經要解』 1책 (完)	전북대, 영남대, 단국대, 동국대, 고려대	·
15	英祖 37, 乾隆 26(1761)	『雪峯山釋王寺記』	인본 無	初刊
16	純祖 6, 嘉慶 11(1806)	『雪峯山釋王寺記』 1책 (完)	고려대, 동국대, 천리대	重刊
17	純祖 21, 道光 1(1821)	『天鏡集』 3권 1책 (完)	규장각, 동국대, 국중	·
18	高宗 25, 光緒 14(1888)	『櫟山集』 2권 1책 (完)	한중연, 국중, 규장각	·

3.2 전존본의 특징

이 장에서는 석왕사판 간행서의 특징 및 판본에 나타나는 주요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연구자는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한 實査를 원칙으로 세웠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영조 37년(1761) 초간본 『雪峯山釋王寺記』는 권말에 간행 기록만 전할 뿐 실물의 소재지를 알 수 없거나 전존하지 않는 자료이다.

이를 제외한 석왕사 간행 서적으로 알려진 17종은 인본을 조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이어 기술할 전존본의 서지 및 관련 기록의 검토에서는 실물이 확인된 석왕사관 간본 17종을 순서대로 살펴보았다.

3.2.1 중종 36년(1541) 刊 『蒙山和尚六道普說』 1책 (完)

蒙山和尚六道普說 / 蒙山(元) 著, 木板本

安邊: 釋王寺, 中宗 31(1541)

1冊(24張): 四周單邊 半郭 24.3 × 16.1 cm, 無界, 6行13字, 黑口, 內向黑魚尾 ; 33.1 × 20.1 cm

刊記: 嘉靖二十年辛丑(1541)三月日咸鏡道安邊土雪峯山釋王寺開板

이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귀 古朝21-110)이다. 이 판은 13자본으로 본문은 大字로 새겨졌고, 연산군 3년(1497) 전라도 鎭安의 懸庵本 계열⁷⁴⁾에 속하고 있다.

본문은 南宋과 元代에 활동한 임제종 승려 蒙山 德異(1231-[1308])가 六道와 輪廻에 대하여 설법한 내용을 다루었다. 본문의 사이사이에 내용은 읽은 흔적으로 약체 구결이 묵서되어 있고, 권말인 제24장에는 간행 참여자의 명단이 나타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法千 / 柱月 / 智全 / 杼心 / 僮釋 / 道近 /
黃海道 平山府 / 金三同 / 大施主 金琰 / 金世踰 / 金世珪 /
韓氏 兩主 / 崔氏若未 / 金[]堅 / []若信 / 金元弼 /
金九佐 / 金壽福 / 金湜 / 金善命 / 吳余山 / 吳萬山 / 金堤 /
吳末山 / 銀代 / 孫俊 / 宋玉熙 / 金守命 兩主 / 文孫 兩主 /
吳參命 兩主 / 孔世桀 / 古奇[] / 從[]之 / 同風今 /
姜熙弼 / 金貴同 /
刻手 義淸 / 化主 智熙 妙明 /
嘉靖二十年辛丑三月日咸鏡道安邊土雪峯山釋王寺開板 /

74) 송일기, 김은진, “蒙山 德異의 『蒙山和尚六道普說』의 판본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3호(2011. 8), 218.

3.2.2 중종 39년(1541) 刊 『法華靈驗傳』 2권 1책 (完)

法華靈驗傳 卷上-卷下 / 了圓(高麗) 錄,

2卷1冊: 四周單邊, 半郭 17.9 × 13.8 cm, 無界, 半葉 11行20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6.6 × 17.6 cm

表題: 法華靈驗錄

版心題: 法華靈驗

刊記: 嘉靖二十三(1544)年甲辰三月日 咸鏡道安邊釋王寺開板

紙質: 楮紙

이 판본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자료(고서 218.092 료67b v.上-下)이다. 표지에는 ‘法華靈驗錄 單’이라 쓰여 있고, 우측 하단에는 어떤 의미에서인지 알 수 없으나 ‘少華嚴’이라 적혀 있다.

석왕사판 『靈驗傳』은 상·하 2권으로 상권 30장, 하권 27장으로 모두 57장 분량으로 편성되었다. 앞선 연구에 의하면, 『법화영험전』은 모두 5종이 알려져 있고, 이 가운데 2종은 일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또한 이 책의 편자인 了圓의 생몰년도 알려진 바가 없으나, 학자에 따라 1290년-1310년 활동설, 1314-1330년 활동설, 고려 말 趙德裕의 아들이라는 설 등 6가지 이상의 견해⁷⁵⁾로 분분하다.

다만, 권두에 밝힌 了圓의 서문에 따르면, 了圓이 唐 慧詳의 『弘贊傳』 10권⁷⁶⁾과 宋나라 宗曉의 『現應錄』 4卷 및 高麗 眞淨國師가 지은 『海東傳弘錄』 4권의 三傳에서 가장奇特的 것을 취하여 모두 2권으로 抄錄하여⁷⁷⁾ 책을 편찬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본문을 새긴 군데군데에 시주자들의 이름이 나타나므로, 이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75) 梁銀容, “고려 了圓撰 法華靈驗傳의 연구,” 『한국문화와 원불교사상』(1985. 10), 619-622.

76) 『弘贊法華傳』을 일컫음.

77) 중종 39년(1541) 刊 『法華靈驗傳』 제1장 제2행-제5행.

“慧詳所撰弘贊傳十 / 卷大宋朝四明沙門宗曉所撰現應錄四卷又有本 / 朝眞淨國師所撰海東傳弘錄四卷今歷覽此三傳 / 抄錄其中最爲奇特事合成二卷 ….”

<표 4> 중종 39년(1544) 刊 「法華靈驗傳」의 시주자 현황

위치 (上卷)	시주명	위치 (하권)	시주명
제6장 우측 하단	智明	제3장 우측 하단	施主 []
제7장 우측 하단	申水江 兩主	제6장 좌측 하단	崔有印
제8장 우측 하단	張玉鈔	제7장 좌측 하단	三其
제9장 우측 하단	雪松	제9장 우측 하단	鄭金叱汀
제11장 우측 하단	申孟知	제13장 우측 하단	松順竹 兩主
제16장 우측 하단	崔鶴孫	제24장 우측 하단	熙悅
제17장 우측 하단	智滿	.	.
제19장 우측 하단	車倫 兩主	.	.
제21장 우측 하단	信眞	.	.
제28장 우측 하단	金長命	.	.

또한 하권의 권말인 제 27장의 뒷면에는 간기 및 간행 참여자의 기록을 별도로 새겨 두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嘉靖二十三年甲辰三月日咸鏡道安邊釋王寺開板 /
 大施主 金興孫 兩主 / 大施主 鄭金叱汀 / 大施主 安希守 /
 罔明 / 惠明 / 雙淳 / 賢隱 / 都堂 / 性應 / 岡岑 / 信岑 /
 印玄 / 一源 / 智俊 / 道悅 / 玄牛 / 智解 / 學令 / 性全 /
 僅彥 / 智全 / 祖勳 / 僅天 / 祖澄 / 熙卞 / 惠溫 / 六修 /
 熙郁 / 印緝 / 智宗 / 祖修 / 印己 / 佛惠 / 記付 朴吉祚玉金 靈駕 /
 記付 劉仁達 兩主 靈駕 / 戒一 / 夕守 / 貴非 / 車倫 /
 雲善 / 希祖 / 朴界孫 / 林玄長 / 張玉孫 / 開城府 梁源汀 /
 崔世弼 / 沉富房 /
 刻手 祖勳 崇替 /
 化主 僅天 供美 惠元 /

3.2.3 명종 1년(1546) 刊 「佛說大目連經」 1책 (完)

佛說大目連經 / 法天, 木板本.

安邊: 釋王寺, 明宗1(1546)

18張: 四周單邊 半郭 18.6 × 12.6 cm, 無界, 8行15字, 內向黑魚尾; 22.8 × 15.7 cm

刊記: 嘉靖二十五年丙午(1546)五月日, 咸鏡道安邊悟道山釋王寺開板

이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귀 古朝21-119)이다. 본문은 부처의 10대 제자 중 神通第一이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天宮으로 구제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 경전은 『父母恩重經』과 함께 효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불경으로 알려져 있다. 그 차이는 부모의 은혜를 강조한 『은중경』에 비해 지옥에 빠진 원인, 지옥의 모습, 지옥에 빠진 부모를 구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목련경』에 대하여는 위경이라는 설⁷⁸⁾과 變相文이 돈황의 영향을 받았을 뿐 위경이 아니라는 설⁷⁹⁾ 등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판본은 대장경에 수록되지 않았고, 고려본 또한 남아 있지 않으나 조선 시대 이후 꾸준히 간행되었던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다.

석왕사 『목련경』은 모두 18장으로 판각되었고, 권말의 제17장에는 이 책의 간행을 주도한 靈運의 발문⁸⁰⁾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인본이 傳하고 사람들이 서목에서는 다만 ‘連經’이라 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앞의 판에는 잘못되거나 누락된 것이 다소간 있으므로, 丙午 즉 명종 1년(1546)에 판을 다시 새겨내게 되었다는 판각 경위를 밝혔다.

靈運의 발문에 이어 제18장에는 간행 관련 기록을 새겨 두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嘉靖二十五年丙午五月日咸鏡道安邊悟道山 / 釋王寺開板 /
靈運書 /
用此刊板功德奉爲 /

78) 閔泳珪, “목련경과 돈황의 變文,” 『史學會誌』 제1호(1963. 6), 2-3.; 金性洙, “目連經의 성립경위,” 『圖書館學論集』 제10호(1983. 12), 1-25.
79) 박도화, “『佛說大目連經』의 성립경위 재고와 판화의 圖像,” 『미술사학』 제12호(1998. 12), 25-52.
80) 『佛說大目連經』 제17장 <발문> 제3-7행.
“… 有一年富禪和納出 / 黃卷一秩乃時人所書目連經也余 / 與手樊秀 … 傳寫 / 差訛碧不技已靈運于發時丙午(1546)也.”

主上三殿壽萬歲 /
 供養大施主 前 釋王 持音 惠旭 記付伏爲 亾 /
 父上將 姜福海 與 崔氏福今 靈駕 比丘 惠元 記 /
 付伏爲 亾 /
 父 韓守堅 靈駕 與 先亡父母法界 亡魂同證金仙 /
 大施主 忠贊衛 朴元孫 兩主 /
 [] 金己 兩主 /
 [] 兩主 / 姜莫終 兩主 / 金赫 / 金守玉 / 車淳享 兩主 /
 咸界先 兩主 / 比丘 信眞 / 比丘 信悟 比丘 學淳 /
 化前持音 惠郁 / 刻板 惠元 / 供養主 道仁 /

이 관은 권말에 밝힌 바와 같이 관하본은 靈運이 작성하여, 각수 惠元이 판각하였다. 개관 동기는 주상 삼전의 장수와 시주들 중 일부 돌아가신 부모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하여 판각하였음을 밝혔다.

3.2.4 선조 7년(1574) 刊 『勸供諸般文』 2권 2책 (完)

勸供諸般文 / [編者未詳], 木板本

[安邊]: 釋王寺, 宣祖 7(1574)

2卷2册: 四周單邊 半郭 22.1 × 17.3 cm, 有界, 8行16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 29.8 × 19.1 cm

刊記: 萬曆二年甲戌(1574) 釋王寺開板

이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귀 古朝21-108)으로, 본문의 내용은 불가에서 거행하는 의식에 필요한 제반 經文, 眞言, 陀羅尼, 偈, 頌들을 모아놓았다. 본문 중 상당 수의 篇들은 흔히 알려진 『雲水壇歌詞』, 『中禮文』, 『諸般文』 등의 내용과 중복되어 있다.

권수제나 관심의 제목을 새기지 않아, 책의 서명은 표지 서명으로 채기하였다. 또한 판본의 상태는 훼손된 곳이 많아 새롭게 장정하였는데, 간간히 떨어져 없어진 곳에는 먹으로 보사하여 두었다.

권제2의 卷首 제1장은 <削髮文>으로 편성되었고, 이 또한 권수제나 판심에도 어떠한 기록도 새겨두지 않았다. 다만, 권2의 마지막 장인 제59장 앞면 <入龕>을 끝으로, 제59장의 뒷면에서 본문이 마무리 되었다. 이 부분 역시 훼손으로 인하여 모두 먹으로 보사되어 있다. 권말에 해당하는 제59장 뒷면 제5행에는 이 책의 간기로 ‘萬曆二年甲戌釋王寺開板’이라 쓰여져 있다. 간기가 먹으로 필사되어 있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나, 새겨진 판본을 토대로 필사하였을 것이므로, 석왕사판으로 간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조 7년(1574) 새길 당시에는 간기에 이어 간행 참여자의 기록도 판각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전존본에서는 이 부분도 훼손되어 남아 있지 않고, 후대에 보사를 할 때도 참여자 기록은 생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외 原刊本이나 後刷本의 소장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 더 이상의 기록을 추가하기는 어렵다.

3.2.5 인조 10년(1632) 刊 『妙法蓮華經』 영본 3권 1책 (缺)

妙法蓮華經 上, 卷1-卷3 / 鳩摩羅什(後秦) 譯 ; 戒環(宋) 解, 木板本
安邊: 釋王寺, 仁祖10(1632)刻, [後刷]

3卷1冊: 變相, 四周單邊, 半郭 18.8 × 13.3 cm, 無界, 半葉 10行20字, 註雙行,
間混內向黑魚尾 ; 28.2 × 17.8 cm

版心題: 法

序: 終南山釋道宣(唐)述

刊記: 崇禎壬申(1632)五月 日 咸鏡道安邊境雪峯山釋王寺開刊(卷1末)

이 판본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고서 213.14 범96사○ v.1)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간행된 鳩摩羅什 漢譯, 戒環 解의 7권본 『법화경』이다.

동국대 소장본은 표제에 ‘妙法蓮華經 上’이라 되어 있어, 下卷인 권제4-권제7

의 1책이 결락된 사실을 알려준다. 본문의 편성은 권수에 변상도 2장을 판각하였다. 또한 변상도를 새긴 제2장의 변란 우측하단에는 ‘變相大施主 學淳’이라 명기하고, 좌측하단에는 ‘開刊崇祐’라고 하여 그림을 판각한 사람이 권제 1의 말미 각수 명단에도 나와 있는 ‘崇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변상도 뒤에 승려 道宣이 述한 <弘傳序>와 及南이 撰한 <要解序>를 두고, 연이어 본문이 이어진다.

본문을 새긴 변란 밖에는 군데군데 시주자들의 이름을 판각하기도 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인조 10년(1632) 刊 「妙法蓮華經」의 시주자 현황

위치 (上卷)	시주명	위치 (하권)	시주명
권수 제2장 변상도	變相大施主 學淳	권3 제12장 좌측하단	大施主 李元日
<弘傳序> 제1장 좌측하단	李一男	" 제14장 좌측하단	幼學 鄭葵
권1 제3장 좌측하단	釋敏	" 제16장 좌측하단	大施主 李岩廻
" 제4장 좌측하단	雪修	" 제18장 좌측하단	大施主 田金同
" 제8장 우측하단	陳允	" 제20장 좌측하단	崔莫同
" 제11장 우측하단	思義	" 제22장 좌측하단	大施主 高永石
" 제16장 우측하단	雄淨	" 제24장 좌측하단	朴億守
" 제44장 우측하단	害民	" 제26장 좌측하단	忠儀衛 尹起文
" 제50장 우측가운데	邑豊	" 제28장 좌측하단	女知銀
" 제62장 좌측하단	雪淳	" 제30장 좌측하단	女補只
권2 제4장 우측하단	黃沉	" 제31장 좌측하단	居士 申尙
" 제11장 좌측하단	女意癸 靈駕	" 제34장 좌측하단	朱山玉
" 제16장 좌측하단	瑩浩	" 제36장 좌측하단	惠能
" 제42장 우측하단	徐敷水	" 제38장 좌측하단	學澄
" 제46장 좌측하단	朴者門	" 제40장 좌측하단	玲悟
" 제49장 좌측하단	朴論金	" 제42장 좌측하단	法連
" 제51장 우측하단	女彭庠	" 제44장 좌측하단	天玲
" 제55장 우측하단	池彦京	" 제46장 좌측하단	崔長守
" 제65장 우측하단	女奉代	" 제48장 좌측하단	內補
권3 제2장 좌측하단	金思卽孫 兩主	" 제50장 좌측하단	惠熙
" 제4장 좌측하단	大施主 性衍	" 제52장 좌측하단	戒禪
" 제6장 좌측하단	大施主 車守光	" 제54장 좌측하단	仁溫
" 제8장 좌측하단	大施主 定盧衛 姜貴善	" 제56장 좌측하단	雪玉
" 제10장 좌측하단	女古音介	" 제58장 좌측하단	女挨德

이 밖에도 권제1의 말미 제63장 제4행 이하에는 간행 참여자 및 간기를 새겨 두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大施主 雪淳 / 大施主 德非 / 大施主 仁伊 / 大施主 黃連玉 /
金士同 / 李汗宗 / 禹三 / 崔莫三 兩主 / 玉梅 / 女玉終 /
崔德崇 / 女春生 / 金碩龍 / 車山水 / 申德男 / 思義 / 學卞 /
性一 / 性能 / 雙正 / 法倫 / 熙岑 / 弘益 / 性暉 / 雪峯 / 惠淳 /
双祐 / 信一 / 智軒 / 法器 /
刻字秩 崇祐 / 一玄 / 袒云 / 性甘 / 妙安 / 忠益 / 弘信 / 學罔 / 學一 /
鍊板 李忠主 /
供養主秩 莫海 / 浩英 / 敬倫 /
別座 法能 / 大化士 靈敏 法能 /
崇禎壬申五月日咸鏡道安邊境雪峯山釋王寺開刊 /

앞선 연구에 따르면, 석왕사판은 成達生이 필서한 계통의 번각본으로 소장처를 부산의 內院精舍로 밝히고 있으나,⁸¹⁾ 동국대학교 소장본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내원정사에 소장된 『법화경』은 같은 해(1632) 5월에 朔寧 龍復寺에서 개간한 판본⁸²⁾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3.2.6 인조 11년(1633) 刊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1책 (完)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 知訥(1158-1210), 木板本

咸鏡道 安邊: 釋王寺, 1633(仁祖11).

東裝1冊: 四周單邊, 半郭 19.5 × 13.7 cm, 有界, 9行20字, 內向黑魚尾; 29.4 × 18.2 cm

刊記: 崇禎六年癸酉(1633) 安邊地 釋王寺 開板

이 판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K3-221)이다. 『法集別行錄節要

81) 鄭王根, “조선시대 『妙法蓮華經』의 판본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212.

82) 문화재청, 불교문화재연구소 編, 『한국의 사찰문화재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II 자료집』 (대전: 문화재청, 2010), 119.

併入私記』는 불교의 강원 교재 중 사집과 과목의 하나로 흔히 『節要』로 약칭된다. 『節要』는 당나라의 宗密(780-841)이 神會의 뜻을 개진하기 위하여 저술한 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시대 판본으로 간행 시기가 14세기로 추정되는 영광 불갑사 소장본을 비롯하여, 조선 초기 光州 圭峯菴本(1486) 등 24종 이상이 간행⁸³⁾된 것으로 확인된다.

전존본의 권말에 따르면, 이 책의 편찬 경위는 고려 知訥이 大安 元年 즉, 고려 熙宗 5년(1209)에 『法集別行錄』의 내용을 간략하게 줄여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편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인조 11년(1633)의 석왕사판 『節要』는 본문이 75장에 달하고, 판심에는 ‘私記’라는 제목과 장차를 새겨두었다. 판심의 어미는 상하내향의 二葉花紋魚尾, 黑魚尾 등이 섞여 있다. 또한 특기할 사실로 판심의 魚尾에는 음각으로 또는 板口에는 양각으로 판을 새긴 이의 이름을 약식으로 표기하였다. 예컨대, ‘山’으로 표기된 분량이 12장, ‘白’이 8장, ‘衍’이 11장, ‘上’이 7장, ‘安’이 4장, ‘玉’이 1장, ‘己’가 3장이며, 각수명이 표기되지 않은 것이 29장에 달한다. 이를 권말에 밝힌 각수명단과 비교하면, ‘安’은 ‘妙安’으로 보이고, ‘玉’은 ‘玉蓮’으로 여겨진다. 또한 ‘衍’은 ‘學衍’으로 보이며, ‘山’은 ‘崇祐’로 생각된다. 그 밖에 ‘上’, ‘白’, ‘己’는 권말의 각수명단만으로 쉽게 추정되지 않는다.

한편, 본문의 제75장의 뒷면에는 간행 관련 기록을 새겨 두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全福 兩主 / 比丘 學裕 / 印軒 比丘 / 覺天 / 金岩回 / 崔榮春 /
大施主 李語夏 / 女務非 / 女几加介 / 黃侶玉 / 崇云 / 吳淨峻 /
天重兒 / 金一龍 / 廣云山 / 女天非 / 永客呂 / 金德守 / 金畜澤 /
女應非 / 鄭碩男 / 女勇眞 / 全青嶺 / 女衰屬 / 盧二男 / 林三峯 /
金建伊 / 女奉加介 / 鄭世忠 / 秋仲男 / 金得伊 / 車巨心 / 差补孫 /
朴莫金 / 朴興朴 / 留寬 / 印默 / 鍾安 / 僅峻 / 裕日 / 智軒 /
刻手 崇祐 / 妙安 / 印機 / 法尙 / 忠益 / 學衍 / 玉蓮 / 元熙 / 尙峻 / 德信 /
鍊板 韓界民 / 飯頭 覺林 / 敬倫 / 文成 / 碧天 /
別座 法能 / 化主 靈敏 法能 /

83) 오용섭, “영광 불갑사 복장본 강원교재 불서 연구,” 『書誌學報』 제35호(2010. 6), 198.

沈芑山 / 沈彥玉 / 金信弼 /
崇禎六年癸酉五月日咸鏡道安邊地雪峯山釋王寺開板 /

3.2.7 인조 11년(1633) 刊 『誠初心學人文』 1책 (完)

誠初心學人文 / 知訥 編, 木板本

[咸鏡道 安邊: 釋王寺, 仁祖 11(1633). 後刷]

紙質: 楮紙

線裝 1冊(32張): 四周單邊, 半郭 15.8 × 11.5 cm, 無界, 半葉 8行 16字, 黑口,
內向黑魚尾 30.1 × 19.3 cm

이 판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K3-191)이다. 『誠初心學人文』은 불교 전문 강원의 초등과정인 沙彌科에서 처음 배우는 교재이기도 하다. 최초의 저술은 고려 후기 知訥(1158-1210)이 조계산에서 禪風을 일으킨 희종 1년(1205)에 수도자들이 승려가 되어 사찰에서 지켜야 할 예법과 수행에 대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조 11년(1633) 석왕사판의 전체 분량은 32장으로, 권수면의 제목이 『誠初心學人文』으로 새겨져 있을 뿐, 실제 이 부분은 제1장-제4장에 불과하다. 연이어 제5장에서 제7장은 <發心修行章>, 제8장에서 제16장까지는 <野雲自警序>, 제17장에서 제20장까지는 <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 <蒙山和尚示衆>, <古潭和尚法語>, <示覺悟先人法語>, <晦堂禪師法語>, <示古原上人>, <示惟正上人>, <示聰上人>, <無字十節目>, <休休庵主坐禪文>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관심의 제목도 ‘戒’, ‘章’, ‘自警’, ‘法’, ‘六’으로 달리 판각하였다.

권말에 해당하는 제32장의 앞면 제2행에서 본문의 모든 내용이 마무리 되었고, 제2행의 여백 뒤 제5행-제7행에는 ‘王妃殿下壽齊年 / 主上殿下壽萬歲 / 王大妃殿下壽萬歲’라는 책의 발원 문구를 새겼다.

뒤 이어 제32장의 뒷면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이 마지막 행에 ‘崇禎六年癸酉七月

日威鏡道安邊土雪峯山釋王寺開'라는 간기를 판각하였다. 특이한 점은 간기를 본문보다 작은 글자로 새겼으나, 판의 한 행에 새길 공간이 부족하였던 탓인지 '釋王寺開板' 또는 '釋王寺開刊'로 판각하지 않고, '釋王寺開'로 마무리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판에서는 간기 외에 간행 참여자 등 다른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3.2.8 인조 11년(1633) 刊 『高峰和尚禪要』 1책 (完)

高峰和尚禪要 / 持正(元) 錄 ; 洪喬祖 編, 木版本

安邊: 釋王寺, 仁祖10(1632).

1冊 (49張): 四周單邊 半郭 18.9 × 12.5 cm, 無界, 8行18字, 上下白口, 上下內向花紋魚尾 ; 27.0 × 16.0 cm

刊記: 崇禎六年壬申(1632)二月日安邊釋王寺開板

이 판본은 대구의 개인 소장본이다. 이 책은 고려 공민왕 3년(1354)에 參學直翁居士 洪喬祖가 쓴 서문이 있어서, 宋나라 말기에서 元나라 초기에 활동한 승려 高峰 原妙(1238-1295)의 어록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본문을 편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선 연구에 의하면, 『禪要』는 불교의 사집과 교재의 핵심 경전으로 14세기 말 德奇寺版을 위시하여 조선시대에 모두 34종⁸⁴⁾ 이상이 간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실물 조사를 토대로 석왕사판이 8행 18자로 간행된 연산군 7년(1501) 鳳棲寺版의 번각본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

이 석왕사판은 전체 49장 분량으로 판각되었고, 본문은 총 29篇으로 되어 있다. 洪喬祖의 서문에 이어 권두의 제3장 <開堂普說> 1편을 시작으로 <示衆>이 12편, <結制示衆> 2편, <解制示衆> 3편 등이 이어진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은 高峰의 세 가지 門을 요약한 <室中三關>으로 마무리되었다.

본문의 마지막 장인 제49장의 말미에는 간행 참여자 등 다른 기록은 없고,

84) 金永善, “高峰和尚禪要 板本考,” 『書誌學研究』 제14집(1997. 12), 169.

간기를 제8행에 새겨두었다. 즉 ‘崇禎六年壬申二月日安邊釋王寺開板’이라는 내용이다. 다만, 간기에서 밝힌 ‘崇禎六年’은 앞서 언급한 2종의 불서인 『節要』와 『誠初心學人文』이 판각되었던 해와 동일한 시점이다. 즉 인조 11년(1633)으로 간지로는 ‘癸酉’에 해당한다. ‘壬申’은 이보다 한 해 전인 인조 10년(1632)이므로, 간지를 착각하여 새긴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석왕사판이 소장된 여러 기관의 목록에서도 1633년(癸酉) 또는 1632년(壬申)의 간행 연도 표기 시 혼란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 판에는 별도의 간행 참여자 기록은 없으나, 본문의 변란 밖에 시주자들의 이름을 간간이 새겨두었다. 이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인조 11년(1633) 刊 「高峰和尚禪要」의 시주자 현황

위치	시주명	위치	시주명
제1장 우측 하단	女然德 兩主	제25장 우측 하단	李崇 兩主 靈駕
제3장 우측 하단	女英氏	제27장 우측 하단	雲[]
제5장 우측 하단	女參[]	제29장 우측 하단	坦日
제7장 우측 하단	女元加采	제31장 우측 하단	金德守
제9장 우측 하단	姜北安尙	제33장 우측 하단	金太日
제13장 우측 하단	朴承先	제35장 우측 하단	女僮王
제15장 우측 하단	黃洗靈	제37장 우측 하단	朴連玉
제17장 우측 하단	女德尙	제41장 우측 하단	女合伊
제19장 우측 하단	女今伊	제45장 우측 하단	趙明伊
제21장 우측 하단	僮淨	제49장 우측 하단	襄學音全
제23장 우측 하단	双先		

3.2.9 인조 12년(1634) 刊 「金剛般若波羅密經」 2권 2책 (完)

金剛般若波羅密經 (五家解) / 慧能(唐) 等解 ; 己和(朝鮮) 等編, 木板本
安邊: 釋王寺, 仁祖 12(1634)

2卷 2冊: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4.8-21.3 × 19.0-15.3 cm, 無界, 9行24字
註雙行, 黑口, 內向黑魚尾 ; 37.3-30.7 × 24.5-20.0 cm

刊記: 崇禎七年甲戌(1634)六月日 咸鏡道安邊釋王寺開

이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貴 古朝21-313)이다. 『金剛經五家解』는 無學 自超(1327-1405)의 제자이자 여말 선초에 활동하였던 涵虛堂 得通(1376-1433)이 梁나라 傅大士(497-569), 唐의 宗密(780-841)과 慧能(638-713), 宋의 宗鏡과 川老 이상 5명의 『금강경』 해설을 모아서 편찬한 판본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초기 간행은 세조 3년(1457) 12월에 왕명에 의하여, 『永嘉集』과 『證道歌』와 더불어 100부가 인출⁸⁵되었던 기록이 있다. 그리고 당시 간행되었던 판본이 일부 소장처에 실물로 남아 전하는 바, 책의 인출 시 큰 글자는 丁丑字로 중간 글자와 작은 자는 甲寅字로 조판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석왕사판은 상권 126장, 하권 110장 분량으로 판각되었고, 각 권의 제1장에는 변상도가 한 장씩 새겨져 있다. 본문의 체제와 형식은 활자본과 동일하여, 당시 사찰 일대에서 많이 유통되었던 15세기 활자본의 중간본으로 여겨진다.

상권의 제126장 뒷면에는 이 판의 간기 및 간행 참여자의 기록을 새겨 두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崇禎七年甲戌六月日咸鏡道安邊釋王寺開 /
 大施主 朴廷賢 / 大施主 朴氏朴只 / 大施主 朴一男 / 女今時 /
 大施主 金江春 / 女玉代 / 大施主 女春允靈 / 大施主 劉萬世靈 /
 大施主 比丘 法器 / 大施主 董班松 / 大施主 李君才 / 大施主 女難介 /
 比丘 智默 靈駕 / 女億非 靈駕 / 金千宗 靈駕 / 趙正男 靈駕 / 卞同良 靈駕 /
 朴汝愚 / 全卜 / 女永春 / 女加屎 / 梁成一 / 比丘 妙玄 / 金岩 / 張忠吐 /
 朴界曼 / 采土龍 / 崔玉良 / 吳千隣 / 孫莫終 / 女苾叱今 / 金內春 /
 金汗澤 / 金忠良 / 金忠寶 / 女貴德 / 朴春介 / 朴春陽 / 崔莫三 /
 女貴今 / 女彥和 / 朴大男 / 趙卜只 / 孫古伊 / 董古音山 / 朴連 兩主 /
 林莫石乙 / 女春伊 / 李安守 兩主 / 沈克一 / 比丘 戒豈 /
 戒日 / 双心 / 大体 / 大珠 / 女天真 / 卍應蘭 / 卍元松 / 金山同 /
 李應男 / 比丘 山英 / 李夫玉 / 比丘 得裕 / 智休 / 僅明 /
 印默 / 性澄 / 弘益 / 弘印 / 双云 / 李應難 / 女內何 / 尹香伊 /
 比丘 印英 / 妙安 / 印機 / 李應得 / 比丘 德聖 / 一覺 /
 諱繼敏 / 李應男 / 李戒男 / 金德難 / 崔末祐 / 金戒男 /

85) 윤병태,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24.

金應得 / 李天吾 / 金忠立 / 鄭彥尙 / 女莫代 / 崔春 /
 金應龍 / 孫守只 / 女莫介 / 女就加屎 / 李汗金 / 女銀杯 /
 華晶 比丘 / 女龍加屎 / 女訥介 / 金斤會 / 思俊 / 守悅 比丘 /
 金現男 / 比丘 僅益 / 朴內金 /
 刻字秩 崇祐 / 印器 / 妙安 / 忠益 / 學行 / 學問 / 玉連 / 元熙 / 宗哲 /
 尙俊 / 學訓 /
 鍊板 韓戒民 / 飯頭 覺林 / 智性 / 敬倫 / 敬佐 / 龍伊 / 碧天 / 戒立 /
 別座 法能 / 化主 靈敏 / 法陸 /

3.2.10 영조 25년(1749) 刊 「禪門五宗綱要」 1책 (完)

禪門五宗綱要 / [釋] 志安(朝鮮) 編, 木版本.

安邊 1冊[20張]: 釋王寺, [英祖25年(1749)]

匡郭 四周雙邊, 半葉匡郭: 20 × 14.5 cm, 有界, 10行 20字 版心 上下內向白魚尾(不同)

表紙, 版心, 卷頭書名

序, 跋, 卷首, 卷末 序: 崇禎紀元後再己巳(1749) … 梁一廈書

刊記 崇禎紀元後再己巳(1749) 關北鶴城館釋王寺刊

이 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古 1840-25)이다. 책의 내용은 조선 후기 의 선승 志安(1664-1729)이 중국 禪宗의 종파인 臨濟宗, 雲門宗, 曹洞宗, 法眼宗의 禪門 5종의 宗旨와 宗綱을 여러 문헌에서 간추려 설명한 것이다. 승려 志安은 후술할 「喚惺詩集」의 저자이기도 하다.

석왕사관의 분량은 서문 포함 모두 20張으로 판각되었고, 책의 권두에는 승려 海源(1691-1770)이 작성하고, 南原 梁一廈⁸⁶⁾가 필사한 서문이 있다. 서문은 후술할 「天鏡集」의 저자로 잘 알려진 涵月 海源이 그의 나이 52세 때 작성하였고, 이에 따르면 자신이 승려 志安의 원고에 靑山과 荊溪의 설을 일부 추가하여

86) 梁一廈에 관한 기록은 알려진 바가 없으나, 「승정원일기」 영조 11년(1735)과 영조 12년(1736) 등에 지역 幼學으로 여러 차례 이름을 올리고 있으므로, 활동 시기면에서 서문을 쓴 梁一廈와 동일인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 기록에 따르면 그는 벼슬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보완하였음⁸⁷⁾을 밝히고 있다. 서문을 작성한 시점은 ‘崇禎紀元後再己巳秋南原梁一屢書’라고 제1장 제10행에 새겨, 책의 간행 시기와 같은 영조 25년(1749) 가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책의 간행 시기에 대하여 서울대 규장각을 비롯한 일부 소장처의 목록 및 서지류⁸⁸⁾ 등에서도 간지 산정의 착오로 숙종 15년(1689)으로 비정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는 책의 저자인 승려 志安은 26세이고, 서문을 작성한 승려 海源은 태어나지도 않은 시점이 된다. 즉, 책의 간행 연도는 海源의 나이 52세 때인 영조 25년(1749)임을 밝혀둔다.

본문 마지막 제19장의 뒷면 제6행-제10행에는 간행 관련 기록이 나타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關北鶴城館釋王寺刊 / 禪門五宗綱要一部 / 明州松德寺講師 /
雪潭 / 靈律 / 德明 / 碧衍 / 戒圓 募緣用助 /
崇禎紀元後再己巳識 /
李德春 / 女三月 / 李壽萬 / 金次彬 / 女姜氏 / 僧 正仁 / 李雲江 / 女南山臺 /
許太貴 / 金聖鼎 /
別座 明察 / 刻手 信位 / 法玲 / 偉演 /

3.2.11 영조 26년(1750) 刊 『性相通說』 2권 1책 (完)

性相通說 / 天親(印度) 著 ; 玄裝(唐) 譯 ; 德淸(明) 述 ; 海源 刊, 木板本
安邊: 釋王寺, 英祖 26(1750)

1冊(36張): 四周單邊 半郭 21.1 × 14.2 cm, 有界, 10行20字, 無魚尾 ; 28.1 × 18.4 cm

表題: 百法論

卷首: 大乘百法明門論

刊記: 關北安邊釋王寺刊

87) 숙종 15년(1689) 刊 『禪門五宗提要』 <序文> 제1장 뒷면 제4행-제7행.

“... 引靑山叟之解於曹洞五位引荊溪師之 / 註通其義顯其要皆依前賢之述而 ...”

88) 윤병태,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89.

이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古朝21-173)이다. 책의 내용은 중국의 명나라 승려 德淸(1546-1623)이 『大乘百法明門論』과 『八識規矩』의 두 책을 합쳐 性相會通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상·하권 모두 권수제는 ‘性相通說’로 되어 있지만, 상권의 권수제 다음에는 ‘百法論義’, 하권은 ‘八識規矩’라는 부제를 붙여 두 책에 대한 德淸의 주석서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석왕사판 『性相通說』은 권두의 <識文> 2장, 상권 15장, 하권 18장, <後跋> 1장의 모두 36장으로 판각되었다. 권말 제34장에 첨부된 <刊百法論後跋>에서는 이 책의 유래를 간략히 설명하였다. 즉, 우리나라에는 판본이 없고 궁벽하여, 後學에게 보이고 萬法의 大要임을 알게 하고자 하였으나 어려움이 많았음을 밝혔다. 또한 세상에는 필사본만이 流行하였는데, 필사본의 경우 너무 차이가 많아 宗師들이 臨講할 때 병으로 여겼다. 결국 涵月大師가 이를 개탄한 지 오래된 바, 우연히 중국판 正本을 얻게 되어 석왕사에서 간행하게 되었다⁸⁹⁾는 간행 경위를 언급하였다. 발문이 쓰여진 시점은 책의 마지막 장 제9행-제10행에 ‘乾隆十五年庚五仲秋鶴谷沙門剋聰謹 / 跋’이라 명기하여 영조 26년(1750) 8월이었음을 알 수 있고, 발문의 내용은 승려 剋聰이 작성하였다.

결국, 영조 26년(1750) 간행된 석왕사판 『性相通說』 또한 이전 해(1749) 석왕사에서 찍은 『禪門五宗綱要』와 더불어 『天鏡集』의 저자인 涵月 海源(1691-1770)이 간행을 주도하였던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海源은 이듬 해(1751)에 간행된 志安(1664-1729)의 시문집인 석왕사판 『喚惺詩集』의 行狀을 손수 집필하였고, 영조 28년(1752)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의 서문을 작성하는 등 18세기 중엽 석왕사의 출판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인물이었다.

이 판의 간행 시기에 대해서는 앞서 『禪門五宗綱要』와 더불어 일부 서지 기록⁹⁰⁾에서는 간지 산정을 잘못하여, 간행 시기를 60년 앞당겨 숙종 16년(1690)으로 제시한 사례도 있다.

한편, 이 판은 10행 20자를 새긴 판의 양식이나 권말의 간행 기록의 형식과

89) 영조 26년(1750) 판 『性相通說』 <刊百法論後跋> 제34장 앞면 제4행-제34장 뒷면 제3행.
90) 윤병태,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89.

나열된 인원 또한 한 해 전(1749) 판각된 『禪門五宗綱要』와 거의 일치한다. 본문 제33장의 뒷면에 밝힌 간행 및 참여자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關北安邊釋王寺刊 / 百法論一部 / 明川松德寺 / 兩宗講師 雪潭 靈律 德明 /
募緣同助 碧衍 / 戒圓 / 崇禎紀元後再庚五 / 涵月海源識 /
李德春 / 女三月 / 李壽萬 / 金次彬 / 女姜氏 / 僧 正仁 / 李雲江 / 女南山臺 /
許太貴 / 金聖鼎 /
別座 明察 / 刻手 信位 / 法玲 / 偉演 /

3.2.12 영조 27년(1751) 刊 『喚惺詩集』 1권 1책 (完)

喚惺詩集 / 志安(朝鮮) 著 ; 聖訥(朝鮮) 編錄, 木板本

安邊: 釋王寺, 英祖27(1751)刻

1冊(13張): 上下雙邊, 半郭 20.6 × 15.2 cm, 有界, 半葉 12行20字 ; 23.3 × 17.3 cm

表題: 喚醒集

序: 辛未(1751)臘月入日丙夜峯

跋: 崇禎紀元後再庚午(1750)春門人海源謹撰

이 관본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218.081 지61ㄱ3)이다. 이 책은 전술한 『禪門五宗綱要』를 편찬한 조선 후기의 禪僧 志安(1664-1729)의 시문집이다. 권두에 鰲峰이 영조 27년(1751) 辛未에 작성한 <題喚惺詩小序>가 있고, 본문에는 志安이 쓴 五言絶句, 七言絶句, 五言律詩 등 주로 詩와 偈 등이 수록되어 있다.

책의 편찬의 志安의 제자인 聖訥(1689-1762)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본문의 제1장 제2행에 ‘門人聖訥編錄’이라 밝혀 두어 알 수 있다.

석왕사판 『喚惺詩集』의 전체 분량은 서문 2장을 포함하여 본문 17장을 합해 모두 19장으로 판각되었다. 판심에는 어머니나 장차 등은 새기지 않고, 다만 제목으로 ‘喚惺詩集’ 또는 ‘喚惺和尚行狀’이라 새겨져 있다.

본문의 제15장-제16장은 승려 海源이 쓴 <喚惺和尚行狀>이 수록되었고, 이

를 작성한 시점은 ‘崇禎紀元後再庚五春門人海源謹撰’으로 밝혀, 영조 26년(1750) 봄이었다. 또한 본문 제17장의 앞면에는 <門庭目錄>이라 하여, 涵月 海源을 비롯하여 華月 聖訥, 雪月 六選 등 승려 志安을 따르던 문인들의 명단 36인을 새겨두기도 하였다.

그리고 권말인 제17장의 뒷면에는 한 면에 걸쳐 이 판의 서사자와 간기를 밝혀 두었다. 즉, ‘乾隆十七年季五月日南原梁一厦書’라 새기고, 한 행을 띄어 4행에 걸쳐 大字로 ‘乾隆辛未仲夏安邊 / 釋王寺開刊留鎮’이라 명기하였다. 영조 27년(1751) 5월에 석왕사에서 판을 새겨 사찰에 두었음을 밝혔다.

이 판을 쓴 南原 梁一厦는 2년 전(1749) 『禪門五宗綱要』의 서문을 서사하기도 하여, 글씨에 능숙했던 인물로 추정된다.

3.2.13 영조 28년(1752) 刊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 10권 4책 (完)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 / [釋]鳩摩羅什(印) 譯經 ; [釋]宗密(唐) 述疏 ; [釋]子璿(宋) 錄記 ; [釋]行策(清) 會編

木版本: 鶴成府 釋王寺, 英祖28年(1752).

10卷 4冊, 匡郭 圖: 四周單邊, 半葉匡郭: 19.4 × 14.1 cm, 有界, 10行 20字
版心 上下內向花紋魚尾 ; 30.6 × 19.8 cm

表紙書名: 金剛經

重刊序: 乾隆十七年壬申(1752) … 海源, 序: 康熙甲辰歲仲夏(1664) … 行策
卷末: 崇禎紀元後再壬申(1752)春刻金剛經刊定記留鎮關北鶴成府雪峯山釋王寺涵月海源識

이 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218.081 지61 ㅎ3)으로, 숙종 12년(1686) 樂安 澄光寺版의 중간본이다. 초간본 『刊定記』는 조선 중기에 활동한 禪僧 性聰(1631-1700)이 숙종 12(1686)에 淸의 行策이 會編한 『金剛經』의 여러 注疏와 그것의 내용, 誤字 등을 刊定⁹¹⁾하여 펴내었다. 栢庵 性聰은 守初(1590-1668)의

범을 이어받았고, 『刊定記』 외에도 『華嚴經疏鈔』와 『會玄記』, 『大乘起信論記』 등을 樂安 澄光寺에서 간행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석왕사관은 중간본이긴 하지만, 본문의 내용면에서는 澄光寺版(1686)의 번가에 가까울 정도로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권수의 圖像이나 중간서문, 간행 참여자 등 일부만 바뀌었을 뿐 본문의 가감이나 변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관은 10권 4책으로 편성되었다. 권제1의 시작 부분에는 『重刻金剛經疏記序』가 2장 새겨져 있다. 서문을 작성한 시점은 제2장의 마지막 행부터 ‘乾隆十七年壬申四月鶴城府雪峯山釋 / 王禪院涵月海源序’라 밝혀, 영조 28년(1752) 4월이었다. 또한 글쓴이는 앞서 『禪門五宗綱要』(1749), 『性相通說』(1750), 『喚惺詩集』(1751)의 간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涵月 海源(1691-1770)이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海源은 서문에서 栢庵 和尚이 숙종 12년(1686)에 판각한 판본⁹²⁾이 세월이 흘러 글자가 흐려져, 영조 26년(1750)에 중각할 뜻을 내비쳤고, 3년째(1752) 되어서야 문하의 도움으로 판각할 수 있게 되었다⁹³⁾는 간행 경위를 밝혔다.

서문에 이어 제2장에는 이 책의 발원 동기로 ‘王妃殿下壽齊年 / 主上殿下壽萬歲 / 世子邸下壽千秋’라는 기문을 大字로 판각해 두었다. 또한 권제1의 말미에는 간기 및 참여자 기록을 새겼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崇禎紀元後再壬午(1752)春刻金剛經刊定記留鎮關北 /
鶴城府雪峯山釋王禪院涵月海源識 /
時住持通政 抱一 / 首僧 楚建 / 書記 處閑 / 公司員通政 梵機 /
時持殿首座 丹輝 / 首座 敏一 /
擇瑞 / 超洽 / 碩輝 / 聰任 / 演慧 / 侃俊 / 侃文 / 彩休 /
彩悅 / 彩鵬 / 思悟 / 得均 / 宗密 / 雙照 / 勝贊 /
鶴淳 / 鶴標 / 梵竺 / 一安 / 妙濟 / 明桂 / 靈應 /
玉珠 / 富益 / 俊慧 / 俊敏 / 振閑 / 世眞 / 讚暹 /
再益 / 右皆本寺老德 /

91) 숙종 12년(1686) 刊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 권제1 제4장 <重刻金剛經疏記會編序>. “... 丙寅四月前安居 / 日後學性聰書于栢庵禪室中.”

92) 숙종 12년(1686) 澄光寺本.

93) 영조 28년(1752) 刊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 <重刻金剛經疏記序> 제1장 제10행-제2장 4행.

즉, 영조 28년(1752)에 판을 새겨 關北 설봉산의 釋王禪院에 두었고, 산중 노덕 36인의 명단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권의 본문 변란 우측 하단에는 ‘李大云 文一兩’, ‘李得貴 文一兩’ 등과 같이 재화를 낸 이의 명단을 밝혀 두었다.

권제3의 말미에도 시주자들의 명단이 나타난다.

通政 念淳 文十五兩 / 嘉善 萬暎 文十五兩 / 嘉善 性寂 番七斗落 /
比丘 樞機 文五兩 / 嘉善 體厚 文五兩 / 嘉善 善和 文五兩 /
通政 安金同 文五兩 / 通政 贊連 文二兩 / 寶瓊 文一兩 /
詳下 文一兩 / 季月 文一兩 /

그리고 권제4의 말미에는 化主, 助緣 등 간행 참여자의 기록이 새겨져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雪潭 靈律 / 龍城 性海 / 南溟 化鵬 / 虛名 圓珠 / 翠松 明慧 /
翫月 軌弘 / 赤洲 梵璇 / 翠雲 川岸 / 首座 戒圓 / 引勸 體微 /
引勸 可熙 / 大師 空鴨 / 助緣 道允 / 右十三人皆化士也 /
通政釋 清源 / 通政 性慧 / 通政 妙卞 / 嘉善 李命先 / 通政 嚴有萬 /
朴氏女趙禮 / 陳氏女世良 / 金貴興 / 金助金 / 嚴信日 / 通政 唯一 /
通政 抱伋 / 行微 / 楓岩 彩眞 / 通政 清律 / 嘉善 侃妙 / 通政 處信 /
嘉善 處祥 /

한편, 권제5의 마지막 장에도 刻員이나 供司 등 간행 참여자 명단을 밝혀 두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緣化 刻員 前任持 若仙 / 京城 / 咸興 / 快胤 / 嘉善 能忍 /
通政 擇璘 / 公司員 定安 / 有司 明機 / 色掌 信位 / 掌務 偉演 /
鍊板 妙欽 / 供司 敏英 / 藏全 / 貝木 金再俊 /
菜軍 吳童 / 來往 月瑞 / 都大別座 明察 / 都監通政 國明 / 本菴錄 /
得巖 / 就彬 / 法瓊 / 偉察 / 道察 / 藏屹 / 藏清 / 通政 金義哲 /
通政 金國哲 / 金德海 / 嘉善僧 弘忍 / 嘉善僧 聖剋 / 嘉善 朴守芳 /
一靈 / 就根 / 高春耕 / 金氏桂淑 /

또한 권제8의 끝부분에는 간행 시 물자를 보낸 시주자들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僧 自和 / 瑞華 / 信偉 / 徐風言 / 月虛 泰建 / 眞坡 海喆 /
華月 聖訥 / 永松 祖印 / 楓嶽 普仁 / 鶴坡 六彰 / 雲谷 天建 /
石峯 玄卞 / 幻宇 能閔 / 舞谷 文學 / 龍峯 秋彥 / 黃巖 德隣 /
東溪 密稔 / 妙頤 / 雲巖 希定 / 龍嶽 性蘭 / 雪月 性寬 /
月峯 玄沔 / 瑞巖 曇輝 / 月影 體安 / 性安 / 春溟 天軾 /
石渚 九鵬 / 栗峯 紹安 / 鶴菴 慧休 / 寶峯 法明 / 熊巖 國安 /
天解 / 法奎 / 朴[九/加]金 兩主 / 朴德贊 / 金連贊 兩主 / 李雲白 兩主 /
通政 僧 處寬 / 處桂 / 抱芳 / 嘉善 處祥 / 通政 處信 / 月松 贊天 /

이상과 같이 권말에 밝힌 명단에 의하면, 석왕사판 『刊定記』의 참여자는 권말에 밝힌 명단으로 승려 시주 106명, 일반인 시주 21명, 각수 14명, 別座 2명, 貝木 3명, 化主 13명이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각 판의 板施主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의 인원이 동원된 간경 불사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다수의 인원이 참여한 것은 『刊定記』의 분량이 10권에 달하고, 전체 장수도 689여장에 달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판각 사업이었던 탓도 있을 것이다.

3.2.14 영조 29년(1753) 刊 『佛說阿彌陀經要解』 1책 (完)

(佛說)阿彌陀經要解 / 鳩摩羅什(後秦) 譯 ; 智旭(明) 解, 木板本.

[安邊]: 釋王寺, 英祖29(1753)刊

不分卷1册(51張): 四周單邊, 半郭 21.3 × 13.8 cm, 有界, 半葉 9行20字, 上內向黑魚尾 ; 28.1 × 17.8 cm

表題: 彌陀經

版心題: 阿彌要解

序: 乾隆癸酉(1753)仲呂月下浣陽明居士吳尙顯序

刊記: 乾隆癸酉(1753)夏開北鶴城雪峯釋王寺開刊

이 판본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고서 213.16 아39703)이다. 최초의 편찬은 중국에서 이루어졌던 바, 중국 명나라 말기의 智旭(1595-1655)⁹⁴⁾이 姚秦代 鳩摩羅什이 번역한 『佛說阿彌陀經』에 주석을 가한 내용이다.

권수에는 후술하게 될 승려 海源(1691-1770)의 문집인 『天鏡集』의 간행 시 발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던 晚翠 吳尙顯⁹⁵⁾의 서문이 한 장 수록되어 있다. 吳尙顯의 서문⁹⁶⁾에 따르면, 癸酉年(1753)에 涵月이 방문하여 『彌陀經要解』의 서문을 부탁하였고, 일찍이 경전에 대한 해석서가 없다고 들었던 바, 涵月の 부탁으로 서문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서문을 쓴 시점은 ‘乾隆癸酉仲呂月下浣陽明居士吳尙顯序’라고 하여 영조 29년(1753) 4월이었다.

책의 말미에는 智旭이 쓴 跋語와 그 제자가 쓴 ‘刻彌陀要解後序’가 있다. 이는 중국에서 간행된 판의 양식을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권말에 해당하는 제50장의 마지막 2행에는 대자로 새겨진 간기가 있다. 즉, ‘乾隆癸酉夏關北鶴 / 城雪峰釋王寺開刊’이라 밝혔다. 이로 미루어 海源이 吳尙顯에게 서문을 받은 시점이 영조 29년(1753) 4월이었고, 곧바로 판각 작업이 추진되어 이 해(1753) 여름 간행 절차가 마무리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3.2.15 순조 6년(1806) 刊 『雪峯山釋王寺記』 1책 (完)

雪峯山釋王寺記 / 休靜 等 撰.

[安邊]: [釋王寺], 純祖6(1806)

木板本 1冊 (10張): 四周單邊 半郭 24.8 × 22.8 cm, 無界, 10行16字; 34.0 × 27.6 cm

94) 명나라 말기 불교계의 四大家 중 한 사람으로, 40여종이 넘는 저술을 남겼다. 당시 알려진 승려들 중 가장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였고, 더불어 明末 清代 초기 불교계의 會通主義 경향을 대변하는 학자로도 알려져 있다.

95) 아버지는 吳命彙이고, 영조 31년(1755)에 別試 甲科 1등에 합격한 기록이 확인된다. 또한 『承政院日記』에서는 영조 31년 5월 이후 安邊人 典籍 吳尙顯이 임금을 알현하는 등 영조 34년(1758)까지 활동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한다.

96) 영조 29년(1753) 刊 『佛說阿彌陀經要解』 <刊彌陀經要解序> 제4행-제6행.
“... 歲癸酉訪涵月于極 / 樂之二庸軒持彌陀經要解要余弁余聞此經會無 / 解正同樹木 ...”

版心題: 釋王寺記

後跋: … 乾隆二十六年辛巳(1761)春涵月海源謹跋

刊記: 嘉慶十一年丙寅(1806)夏改板景昨書

이 판본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육당 C3-A41)이다. 수록된 내용은 앞서 여러 차례 언급된 바와 같이, 선조 31년(1598) 西山大師 休靜(1520-1604)이 쓴 『寺記』를 비롯하여 <太祖御製>와 <肅廟御製> 등 석왕사의 비문을 採記하여 수록하였다. 이 밖에도 사찰 건물의 연혁이나 그에 얽힌 일화 등도 함께 기록하였다.

석왕사판 『雪峯山釋王寺記』의 初刊 시기는 발문을 작성한 승려 海源(1691-1770)이 71살 때인 영조 37년(1761)이었다. 이는 발문을 새긴 제10장의 뒷면 제5행에 ‘乾隆二十六年辛巳春涵月海源謹跋’이라는 문구를 새겨 두었기 때문에 확인된다. 또한 海源의 발에 이어서 ‘嘉慶十一年丙寅夏改板 景昨書’라 판각하여, 순조 6년(1806) 여름에 승려 景昨가 다시 써서 재차 간행하였음을 밝혀 두었다.

순조 6년(1806)에 간행된 판은 영조 37년(1761) 간행된 初版과 내용의 변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술한 바와 같이 정조 11년(1787)에도 함경감사에 의하여 『雪峯山釋王寺記』가 인출되었던 기록⁹⁷⁾을 살펴보았다. 물론, 정조 11년(1787)에 인출되어 중앙으로 올려진 판본은 초간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2.16 순조 21년(1821) 刊 『天鏡集』 3권 1책 (完)

天鏡集 / 海源(朝鮮) 著 ; 聖岸(朝鮮) 編錄 ; 等麟 校正

鶴城: 釋王寺, 純祖21(1821)刻

木板本 3卷1冊: 四周單邊, 半郭 20.0 × 14.2 cm, 有界, 半葉 10行20字, 內向2葉花紋魚尾 ; 26.0 × 17.5 cm

序: 辛巳(1821)鶴城府伯書于香雪軒

97) 『承政院日記』 정조 11년 4월 13일 庚戌條.

跋: 不肖孫華嶽知濯謹跋

刊記: 聖上卽阡二十一年辛巳(1821)菊月日鶴城府雪峯山釋王寺留版

이 판본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고서 218.081 해67ㄷ)이다. 본문은 화엄학의 대가로 『喚惺詩集』을 지은 志安(1664-1729)의 제자이자 석왕사에서 주로 활동한 涵月 海源(1691-1770)의 문장들이 수록되어 있다. 책의 구성은 주로 海源의 증장년기 작품인 <記文>, <序文>, <疏>, <上樑文>, <行狀> 등을 수합하여 그의 제자⁹⁸⁾들이 編集한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승려 海源은 18세기 중엽 석왕사에서 간행된 대부분의 간행 사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인물이었다. 제자들은 海源의 사후에 석왕사에 탑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문산에 그의 비석을 세우기도 하였다 전한다.

또한 『天鏡集』의 내용 중에는 <釋王寺法堂重修及六大菩薩金像造成記>, <雪峯山深寂庵廣興樓創建記>, <釋王寺觀音殿重創記>, <釋王寺五百羅漢錦袈裟改造記>, <釋王寺觀應堂記>, <釋王寺事蹟後跋> 등 석왕사의 연혁이나 경내 건물의 역사를 다룬 글들이 많다. 이를 통해 앞서 여러 차례 인용한 바와 같이, 사찰 관련 기록이 부재된 상황에서 석왕사의 역사 및 건물의 이력을 짚어보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문의 편성을 일별하면 권두에서 제4장까지는 鶴城府 伯이 香雪軒에서 쓴 서문이 있다. 초서의 大字로 판각되었고, 鶴城府 伯에 대하여는 특정하기 어려우나 쓰여진 내용에 의하면, 고을의 관아로 찾아와 서문을 부탁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당시 鶴城府 관료 중의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문은 상, 중, 하 3권으로 구분하여 海源이 지은 <書文>, <記文> 등 여러 문장을 수록하였고, 본문이 끝나는 권하의 제22장 앞면에는 ‘刻工秩 / 都片手 比丘 文下 / 副弟子 比丘 德[日/閑] / 監董 隱峰 宗一’과 같이 각수 명단을 밝혔다. 연이어 제22장 뒷면 제9행-제10행에는 이 판의 간기 사항으로 ‘門孫默菴巨峯盥手謹書 / 聖上卽阡二十一年辛巳菊月日鶴城府 雪峯山釋王寺留板’이라 새겼다.

98) 『天鏡集』 <서문> 제3장에 따르면, 문도 雷默堂 等麟과 제자 瀛濟가 주도함.

즉, 순조 21년(1821) 9월에 석왕사에서 판을 새겨 보관하였음을 명기하였다. 뒤에 제23장에는 부록으로 崇禎紀元後二辛卯重九月日에 門人 聖岸이 쓴 <行蹟>, 漁川道察訪 吳尙顯이 작성한 <跋>과 大提學 黃景源이 쓴 <眞贊>이 있다. 제25장에는 '門人'에 대한 인명록을 한 장 새겼고, 제26장은 門孫 知濯이 쓴 跋文으로 문집이 마무리 되었다.

3.2.17 高宗 25년(1888) 刊 『櫟山集』 2권 1책 (完)

櫟山集 / 善影 著.

安邊 雪峯山: 釋王寺內院菴, 1888

[木活字本] 2卷1册: 四周單邊 半廓 20.7 × 15.2 cm, 10行20字, 注雙行, 內向2
葉花紋魚尾 ; 30.0 × 19.8 cm

序: 癸未(1883) … 金祖永. 戊子(1888) … 心舟

跋: 尹祖榮. 靈應

刊記: 崇禎紀元後五戊子(1888) … 道安邊雪峯山釋王寺內院菴開刊

이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古朝46-가1026)이다. 조선 후기의 禪僧 映虛 善影(1792-1880)의 시문집으로, 그의 호를 따 흔히 『映虛堂集』 또는 『映虛堂遺集』으로 불린다. 승려 善影이 만년에 석왕사 內院菴에 머문 것이 계기가 되어 내원암에서 간행되었다. 內院菴은 普門菴, 白蓮菴과 더불어 본사에 소속된 암자로, 석왕사의 서쪽 3리에 위치⁹⁹⁾하여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櫟山集』은 앞서 살펴본 석왕사판과 달리 석왕사판 간본 중 유일하게 목활자로 인쇄된 판본이다.

문집 본문의 상당 부분은 詩와 書가 수록되었으나, 하권에는 앞서 살펴본 『天鏡集』의 사례와 같이 <釋王寺大雄殿重修記>, <釋王寺內院庵鑄鍾記> 등 사찰 관련 기록을 담고 있다. 海源의 『天鏡集』과 더불어 석왕사의 역사를 살펴볼 수

99) 고종 9년(1872) 寫 『安邊都護府邑誌』, <寺刹> 제7장 앞면 제7행.

있는 사료로서의 가치도 부각된다.

권수 부분에는 金祖永이 쓴 <序文>과 法孫이었던 心舟의 <識文>이 있고, 하권의 말미에는 승려 靈應의 발문과 善影에게 戒와 法을 받아 인연을 맺은 승려들의 명단을 <受恩>, <受法>, <受禪>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나열된 인원은 元長, 妙輪, 良善 등 승려 161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제52장의 뒷면에는 간행 참여자 및 간기를 밝혀 두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主事 雪河 復性 / 都監 龍海 淨眼 / 別座 龍淵 慧[日/欣] /
供司 比邱 應得 / 住持 清河 聖一 / 三綱 首僧 永鎬 / 書記 綿炯 / 舍主 應鉉 /
崇禎紀元後五戊子七月日咸鏡道安邊雪峯山釋 / 王寺內院菴開刊 /

즉, 간기의 ‘崇禎紀元後五戊子’는 승려 善影이 죽은 지 9년째 되는 고종 25년(1888)이고, 간행 참여자는 모두 8명이었다.

4. 간행 불서의 분석

4.1 간행 동기

사찰의 제반 물력과 인력이 동원되는 불서의 개관 업무는 다양한 목적에서 비롯될 수 있다. 예컨대, 사찰의 위상이나 명분을 세우기 위한 출판, 또는 판각에 참여한 신도들을 축원하거나 죽은 이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한 것, 간본의 유포나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판각, 사찰의 업무와 의식에 참고하거나 승려들의 독송 등 실무적인 필요성에 따른 개관 등 여러 범주로 구분되기도 한다.

물론, 이 가운데 수요와 공급이라는 실제적인 관점에서 다분히는 사찰의 실용적 필요성에 따른 판각 활동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불경류의 이러한 판각 동기는 서문이나 발문을 통해 남기는 것이 불서 간행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공통점이었다.

석왕사에서 새겨진 일련의 판본들을 간행 동기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본래 목적은 어느 사찰과 마찬가지로 사찰의 수요나 필요성이라는 측면이 전제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석왕사 판본들의 序·跋이나 권말 기록에는 이러한 실제적인 이유는 차치하더라도, 개별 서적마다 책의 간행 동기를 별도로 밝히고 있다. 이를 유형화하여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석왕사판 간본의 간행 동기

연번	구분	종수	비율	경전명
1	佛徒 및 후학들의 수행 또는 학습을 위한 판각	6	33.3%	佛說大目連經(1546), 禪門五宗綱要(1749), 性相通說(1750), 喚惺詩集(1751), 金剛經刊定記(1752), 佛說阿彌陀經要解(1753)
2	자료/기록 보존 및 유포 또는 후대 전승	4	22.2%	雪峯山釋王寺記(1761), 雪峯山釋王寺記(1806), 天鏡集(1821), 櫟山集(1888)
3	주상, 왕비, 세자 또는 왕실의 안녕을 기원	1	5.5%	誠初心學人文(1633)
4	未詳	7	38.9%	蒙山和尚六道普說(1541), 法華靈驗傳(1544), 勸供諸般文(1574), 妙法蓮華經(1632),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1633), 高峰和尚禪要(1633), 金剛般若波羅密經(1634)
합계		18	100%	.

4.2 간행 시기 및 판종

석왕사판 간본의 간행 시기는 16세기 4종(22.2%), 17세기 5종(27.8%), 18세기 6종(33.3%), 19세기 3종(16.7%)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특히, 17세기 초경인 1632년과 1634년 사이 5종의 경전이 한꺼번에 판각되었다. 또한 18세기 중엽 1749년과 1753년 사이 5종이 집중 간행되어, 사찰에서는 이 시기 두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개관 불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전존본의 판종은 목활자본 『櫟山集』(1888) 1종을 제외한 17종 간본이 모두 목판으로 인쇄되었다.

4.3 주제별 분포

사찰에서 보관된 불경의 주제별 분포를 일별하면, 해당 사찰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찰의 경우 필요에 따라 수시로 다양한 분야의 경전을 간행하였다. 이러한 출판에는 사찰의 전통성이나 종파보다는 범불교적인 태두리에서 실제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이 더 우선시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찰에서 간행된 서책의 주제별 분포를 일람하는 것은 당시 해당 사찰의 성격과 출판 동향을 살펴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석왕사 판본은 禪宗類의 서적과 사찰과 인연을 맺은 승려의 文集類가 비교적 많이 간행되었다. 이를 개관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석왕사판 간본의 주제별 분포

부별	유별	종수	비율	경전명
經典部	般若經類	1	5.5%	金剛般若波羅密經(1634)
	法華經類	1	5.5%	妙法蓮華經(1632)
	寶積經類	1	5.5%	佛說阿彌陀經要解(1753)
	經集類	1	5.5%	佛說大目連經(1546)
宗義部	禪宗類	6	33.3%	蒙山和尚六道普說(1541), 高峰和尚禪要(1633), 誠初心學人文(1633),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1633), 性相通說(1750), 禪門五宗綱要(1749)
	禮懺類	1	5.5%	勸供諸般文(1574)
史傳部	靈驗傳類	1	5.5%	法華靈驗傳(1544)
	寺誌類	2	11.1%	雪峯山釋王寺記(1761), 雪峯山釋王寺記(1806)
文集部	文集類	3	16.7%	喚惺詩集(1751), 天鏡集(1821), 樸山集(1888)
註疏部	般若經類	1	5.5%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1752)
합계	·	18종	100%	·

4.4 판의 형식

4.4.1 邊欄

앞선 연구들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임란 전후를 막론하고, 사찰에서 간행된 판본의 상당 부분은 四周單邊의 양식으로 판각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처럼 四周單邊의 양식이 선호되는 것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간행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석왕사판 불서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변란의 양식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석왕사판 불서의 변란 양식

연번	구분	종수	비율	경전명
1	四周單邊	15	83.3%	佛說大目連經(1546), 蒙山和尚六道普說(1541), 法華靈驗傳(1544), 勸供諸般文(1574), 金剛般若波羅密經(1634), 妙法蓮華經(1632), 高峰和尚禪要(1633), 誠初心學人文(1633),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1633),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1752), 佛說阿彌陀經要解(1753), 雪峯山釋王寺記(1761), 雪峯山釋王寺記(1806), 天鏡集(1821), 櫟山集(1888)
2	上下雙邊 左右單邊	2	11.1%	禪門五宗綱要(1749), 喚惺詩集(1751)
3	上下單邊 左右雙邊	1	5.5%	性相通說(1750)
합계	·	18종	100%	·

4.4.2 行·字數

광흥사 판본의 行格은 6행에서 12행까지 다양하다. 또한 한 행당 글자 수는 13자본에서 20자본까지 나타난다. 18종의 판본 중에 行數는 10행본이 8종(44.4%)이었고, 字數는 20자본이 10종(55.6%)로 선호되었다.

<표 10> 석왕사판 불서의 行數

연번	구 분	종수	비율	경전명
1	6행본	1	5.5%	蒙山和尚六道普說(1541)
2	8행본	4	22.2%	佛說大目連經(1546), 勸供諸般文(1574), 誠初心學人文(1633), 高峰和尚禪要(1633)
3	9행본	2	11.1%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1633), 金剛般若波羅密經(1634)
4	10행본	8	44.4%	妙法蓮華經(1632), 禪門五宗綱要(1749), 性相通說(1750),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1752), 雪峯山釋王寺記(1761), 雪峯山釋王寺記(1806), 天鏡集(1821), 櫟山集(1888)
5	11행본	1	5.5%	法華靈驗傳(1544)
6	12행본	1	5.5%	喚惺詩集(1751)
합계	·	18	100%	·

<표 11> 석왕사판 불서의 字數

연번	구 분	종수	비율	경전명
1	13자본	1	5.5%	蒙山和尚六道普說(1541)
2	15자본	1	5.5%	佛說大目連經(1546)
3	16자본	4	22.2%	勸供諸般文(1574), 誠初心學人文(1633), 雪峯山釋王寺記(1761), 雪峯山釋王寺記(1806)
4	18자본	1	5.5%	高峰和尚禪要(1633)
5	19자본	1	5.5%	金剛般若波羅密經(1634)
6	20자본	10	55.6%	法華靈驗傳(1544), 妙法蓮華經(1632),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1633), 禪門五宗綱要(1749), 性相通說(1750),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1752), 佛說阿彌陀經要解(1753), 喚惺詩集(1751), 天鏡集(1821), 櫟山集(1888)
합계	·	18	100%	·

4.4.3 版心 및 界線

판심에 나타나는 魚尾의 형태는 번각의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반드시 원본의 형태를 준용하지는 않는다. 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기는 각수의 재량이 반영되는 영역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원본이 黑魚尾로 일관된 경우라도 후대에 새기면서 각수의 이름을 넣기도 하고, 문양을 새겨넣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판본의 간행 장소나 시기에 따른 魚尾의 일반화된 경향을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여기서는 개별 판본의 현상을 기술할 뿐이며, 上下內向黑魚尾가 4종(22.2%), 不定魚尾 10종(55.6%), 上下向黑魚尾 1종(5.5%), 上下內向四瓣花紋魚尾 2종(11.1%)과 어미를 새기지 않은 1종(5.5%)으로 나타났다.

석왕사판 불서의 版口 형태는 上下 大黑口本이 4종(22.2%)이었고, 나머지 14종(77.8%)은 上下 白口本이다. 또한 본문의 계선은 無界本과 有界本이 각각 8종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4.5 간행 참여자

4.5.1 刻手

서적의 간행 업무에서 판을 새기는 일은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다. 석왕사판 불서의 판각에 참여한 각수는 주로 한 명에서 많게는 11명까지 담당하기도 하였다. 목활자본 『櫟山集』과 『誠初心學人文』 등 일부 판본은 각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17종 전존본의 상당수는 각수의 명단을 권말의 간행자 명단 기록하였으나, 魚尾나 판심 부분에 略記한 사례도 있다.

인본이 남아 있는 석왕사판 17종 간본의 각수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석왕사판 간본의 각수 현황

연번	서명	표기	각수명
1	蒙山和尚六道普說(1541)	刻手	義淸
2	法華靈驗傳(1544)	刻手	祖蘊, 崇替
3	佛說大目連經(1546)	刻板	惠元
4	勸供諸般文(1574)	.	.
5	妙法蓮華經(1632)	刻字秩	崇祐, 一玄, 袒云, 性甘, 妙安, 忠益, 弘信, 學罔, 學一

연번	서명	표기	각수명
6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1633)	刻手	崇祐, 妙安, 印機, 法尙, 忠益, 學衍, 玉蓮, 元熙, 尙峻, 德信
7	誠初心學人文(1633)	.	.
8	高峰和尚禪要(1633)	.	.
9	金剛般若波羅密經(1634)	刻手秩	崇祐, 印器, 妙安, 忠益, 學行, 學問, 玉蓮, 元熙, 宗哲, 尙俊, 學訓
10	禪門五宗綱要(1749)	刻手	信位, 法玲, 偉演
11	性相通說(1750)	刻手	信位, 法玲, 偉演
12	喚惺詩集(1751)	.	.
13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1752)	刻貝	若仙, 京城, 咸興, 快胤, 能忍, 擇璘, 定安, 明機, 信位, 偉演
14	佛說阿彌陀經要解(1753)	.	.
15	雪峯山釋王寺記(1761)	.	.
16	雪峯山釋王寺記(1806)	.	.
17	天鏡集(1821)	刻工秩	文下, 德[日/閑], 宗一
18	樸山集(1888)	.	.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수들의 신분은 주로 승려로 이루어졌다. 이들 중 일부는 인근 사찰의 출판 활동 시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또한 17세기 崇祐, 妙安, 忠益 등은 3종의 경전을 중복으로 판각하였고, 18세기 『禪門五宗綱要』(1749)를 새긴 信位, 偉演 또한 비슷한 시기 간행된 3종의 판본을 새긴 각수였다.

4.5.2 化主

화주는 사찰 판본 간행 시 신도들을 勸化하고, 간행 사업을 주도하였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다른 호칭으로 幹善, 化士, 緣化, 幹緣, 幹化 등 다양하게 불리어졌다.

석왕사판 간본의 化主 현황을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표 13> 석왕사판 간본의 化主 현황

연번	서명	표기	인물명
1	蒙山和尚六道普說(1541)	化主	智熙, 妙明
2	法華靈驗傳(1544)	化主	僅天, 供美, 惠元
3	佛說大目連經(1546)	化	惠郁
4	勸供諸般文(1574)	.	.
5	妙法蓮華經(1632)	大化士	靈敏, 法能
6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1633)	化主	靈敏, 法能
7	誠初心學人文(1633)	.	.
8	高峰和尚禪要(1633)	.	.
9	金剛般若波羅密經(1634)	化主	靈敏, 法能
10	禪門五宗綱要(1749)	.	.
11	性相通說(1750)	.	.
12	喚惺詩集(1751)	.	.
13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1752)	化士	靈律, 性海, 化鵬, 圓珠, 明慧, 軌弘, 梵璇, 川岸, 戒圓, 體微, 可熙, 空鴨, 道允
14	佛說阿彌陀經要解(1753)	.	.
15	雪峯山釋王寺記(1761)	.	.
16	雪峯山釋王寺記(1806)	.	.
17	天鏡集(1821)	.	.
18	櫟山集(1888)	主事	復性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化主는 주로 1명에서 많게는 13명까지 맡았으며, 이들은 신분은 승려로 이루어졌다. 사찰의 신도를 통솔하고, 간행 사업을 주도하였던 위치를 감안하면, 그 신분이 승려라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인물 중 승려 靈敏과 法能은 17세기 초경 간행된 3종의 경전에서 화주 역할을 담당하였다. 17세기 중엽 『刊定記會編』(1752)은 간행 참여자가 200여명에 달하는 거질의 판각사업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13명의 화주를 둔 것은 이채로운 바, 이는 사찰 간본의 판각 시 간행 시점이나 규모를 막론하고, 대개 1-3명 정도의 化主를 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4.5.3 供養主

공양주는 불경 간행의 工役 시 시주자 및 간행 참여자들의 먹거리를 담당하였던 직책이다. 주로 밥짓는 소임을 맡았으며, 반찬이나 다른 음식을 마련하는 직책이었던 別座와는 구분되었다. 그리하여 그 역할에 대한 표기는 供養主뿐 아니라 飯頭 또는 熟頭, 供司, 炊飯 등으로 표시되기도 하였다.

석왕사판 간본의 공양주 현황을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석왕사판 간본의 供養主 현황

연번	서명	표기	인물명
1	蒙山和尚六道普說(1541)	·	·
2	法華靈驗傳(1544)	·	·
3	佛說大目連經(1546)	供養主	道仁
4	勸供諸般文(1574)	·	·
5	妙法蓮華經(1632)	供養主秩	莫海, 浩英, 敬倫
6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1633)	飯頭	覺林, 敬倫, 文成, 碧天
7	誠初心學人文(1633)	·	·
8	高峰和尚禪要(1633)	·	·
9	金剛般若波羅密經(1634)	飯頭	覺林, 智性, 敬倫, 敬伋, 龍伊, 碧天, 戒立
10	禪門五宗綱要(1749)	·	·
11	性相通說(1750)	·	·
12	喚惺詩集(1751)	·	·
13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1752)	供司	敏英, 藏全
14	佛說阿彌陀經要解(1753)	·	·
15	雪峯山釋王寺記(1761)	·	·
16	雪峯山釋王寺記(1806)	·	·
17	天鏡集(1821)	·	·
18	樸山集(1888)	供司	應得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供養主는 한 명에서 많게는 7명이 맡았으며, 신분은 주로 사찰에 소속된 승려였다. 이 가운데 17세기 초 覺林은 2종, 敬倫은 3종에 중복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供養主로 참여한 인물 중에는 같은 관의

시주 명단에 이름이 올리기도 한 정황을 살펴볼 수도 있다.

4.5.4 鍊板

鍊板은 일차적으로 별목된 나무에서 책판의 형태를 갖추도록 재단하는 업무 또는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에 그 표기는 鍊板이 주로 사용되었고, 일부 판에서는 大木, 大手, 員木으로 표기된 사례도 있다.

석왕사판 간본의 鍊板者는 주로 1명이 담당하였으며, 모두 4종의 간본에서 그 직역을 표기하여 두었다. 『法華經』(1632), 『私記』(1633), 『金剛經』(1634), 『刊定記』(1752)이다. 연판자들의 신분은 일반인과 승려였다. 또한 『私記』(1633)의 韓戒民은 『金剛經』(1634)에서도 동일한 연판자로 중복 참여하였다. 연판은 木工의 영역으로 각수 정도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했던 분야로 여겨진다.

4.5.5 施主

시주는 사찰 판본 간역 시 재화와 물력을 보태었으며, 그 寡少에 따라 大施主 또는 小施主로 구분되기도 한다. 또한 진존하는 판본에 따르면, 시주하는 영역에 따라 鍊板施主, 供養施主, 布施施主, 板施主 등으로 나누어 기재된 사례도 있다.

한편, 불경에 나타난 시주 명단은 일반적으로 부부의 이름을 함께 올리고, 살아 있는 사람의 경우 부부일 때는 兩主, 한 명일 경우 保體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죽은 사람의 경우 당사자들이 직접 施資하지는 않았겠으나, 靈駕라는 호칭으로 집안이나 후손에서 재화를 보태고 망자의 이름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석왕사판 간본의 경우도 이러한 시주에는 일반인과 승려들이 고루 섞여 있었고, 참여한 인물들은 적게는 수 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넘어서는 경우도 흔하였다. 또한 이들은 비슷한 시긴 판본에 중복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판본별 시주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15>와 같다.

<표 15> 석왕사판 간본의 施主者 현황

연번	서명	표기	인물명
1	蒙山和尚六道普說(1541)	·	일반인 33명, 승려 6명
2	法華靈驗傳(1544)	大施主	일반인 27명, 승려 42명
3	佛說大目連經(1546)	大施主, 供養大施主	일반인 18명, 승려 4명
4	勸供諸般文(1574)	·	·
5	妙法蓮華經(1632)	大施主	일반인 38명, 승려 42명
6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1633)	大施主	일반인 33명, 승려 10명
7	誠初心學人文(1633)	·	·
8	高峰和尚禪要(1633)	·	·
9	金剛般若波羅密經(1634)	大施主, 施主	일반인 81명, 승려 27명
10	禪門五宗綱要(1749)	·	일반인 9명, 승려 6명
11	性相通說(1750)	·	일반인 9명, 승려 6명
12	喚惺詩集(1751)	·	·
13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1752)	·	일반인 21명, 승려 106명
14	佛說阿彌陀經要解(1753)	·	·
15	雪峯山釋王寺記(1761)	·	·
16	雪峯山釋王寺記(1806)	·	·
17	天鏡集(1821)	·	·
18	樸山集(1888)	·	·

이 밖에도 관하본을 쓴 서사자를 밝힌 판이 『佛說大目連經』(1546), 『禪門五宗綱要』(1749), 『喚惺詩集』(1751), 『雪峯山釋王寺記』(1806)의 4종이 있다. 이들의 표기 방식은 ‘書’ 또는 ‘書寫’로 되어 있다. 또한 밥을 짓는 供養主와 더불어 반찬이나 음식을 담당하는 別座는 6종의 간본에서 명단을 밝혀두었고, 三綱이나 助緣, 都監 등의 신분을 표기한 사례도 있다.

5. 맺음말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하여 과거 함경도 지역을 대표하였던 명찰 중 하나였던 석왕사의 연혁 및 역사에 대하여 소급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사찰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출판 활동 및 서적의 간행 정황을 사료를 통하여 개관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 남아있는 판본 및 관련 기록을 조사하여 사찰 출판의 면모를 정리하였고, 인본에 나타나는 간행 관련 기록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 석왕사는 초창기 창건에 관한 명확한 사료는 남아있지 않으나, 고려 말 無學 自超(1327-1405)와 태조 이성계의 인연으로 고려 우왕 3년(1377) 이전 또는 우왕 11년(1385)을 전후하여 창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사찰은 조선 초기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15세기 초에는 이미 대찰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후로도 석왕사는 왕실과 밀접한 후원 관계를 유지하며 그 세를 확장하였고, 이러한 분위기는 조선 말기까지 면면히 이어졌다. 이러한 석왕사에서는 15세기 초 觀音窟의 중창을 시작으로, 기록 상 30차례 이상의 건물 중수 및 중창 이력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러한 와중에도 사찰에서는 꾸준히 출판 활동이 지속되었고, 16세기 4종, 17세기 5종, 18세기 6종, 19세기 3종의 佛經類나 事蹟類, 문집 등이 간행되었다.

이들 판본에 대한 序·跋이나 발원문의 검토 결과, 사찰 간본의 간행 동기는 상당 부분이 佛徒 및 후학들의 수행이나 학습 목적으로 판각이 이루어졌다. 또한 문집이나 事蹟은 자료 보존이나 후대 전승을 위한 출판 활동이었고,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판각도 있었다.

간행 방식은 목활자본 1종을 제외한 17종이 목판으로 이루어졌고, 간행된 주제는 宗義部 禪宗類 6종(33.3%), 經典部 4종(22.2%)으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 사찰 승려의 문집류 3종(16.7%)이나 사적류 2종(11.1%)순으로 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새겨진 판본의 형식면에서는 광곽의 경우 四周單邊이 15종(83.3%), 기타 3종(16.6%)이었고, 행자수는 10행 20자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관심의 어미는 不定魚尾 10종(55.6%), 上下內向黑魚尾가 4종(22.2%),

上下內向四瓣花紋魚尾 2종(11.1%), 上下向黑魚尾 1종(5.5%)과 어미를 새기지 않은 1종(5.5%)으로 나타났다. 또한 板口 형태는 14종(77.8%)이 上下 白口本이었고, 아래 위 大黑口本은 4종(22.2%)이었다. 그리고 본문의 계선은 無界本과 有界本이 각각 8종로 동일하였다.

이 밖에도 간행 사업에 참여한 다양한 직역의 참여 실태를 살펴보고, 이들은 비슷한 시기 여러 간본의 판각 활동에 중복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당시 사찰 출판의 모습 및 정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原典]

- 『關北邑誌』(1874, 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 『釋王寺修理形止記』(1866, 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 『釋王寺誌』(1806, 목활자본, 국립중앙도서관).
- 『安邊都護府邑誌』(고종연간, 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 『安邊府地圖』(1872, 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 『淸芬室書目』(1968, 영인본).
- 『翠微大師詩集』(간년미상, 목판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단행본]

- 江田俊雄. 『朝鮮佛教史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1977.
- 鎌田茂雄 著. 『朝鮮佛教史』. 東京: 東京大學出版部, 1987.
- 慶尙道七百年史編纂委員會 編. 『慶尙道七百年史』. 대구: 同會, 1999.
- 慶尙北道史 編纂委員會 編. 『慶尙北道史 上·中·下』. 대구: 同會, 1983.
- 고영섭 지음. 『한국불교사연구』. 과주: 한국학술정보, 2012.
- 국립문화재연구소 編. 『불교민속문헌해제』.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 權相老. 『韓國寺刹全書』.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 김갑주 저. 『조선시대 사원경제사 연구』. 서울: 景仁文化社, 2007.
- 金斗鐘.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80.
- 김용선 편저. 『고려묘지명집성』. 춘천: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2.
- 김용선 지음. 『고려금석문연구: 돌에 새겨진 사회사』. 서울: 일조각, 2004.
- 金澤庄三郎 編. 『朝鮮書籍目錄』. 서울: 成進文化社, 1976.
-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엮음. 『북한의 전통사찰 (10) 강원도』. 서울: 養士齋, 2011.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編.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 東國大學校 佛典刊行委員會 編. 『韓國佛教典書 第8冊』.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0.
- 리철화. 『조선출판문화사』. 서울: 사회과학출판사, 1995.
- 모리스 꾸랑 著, 이희재 역. 『韓國書誌』. 서울: 一潮閣, 1994.
- 문화재청 編. 『한국의 사찰문화재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대전: 문화재청, 2007.
- 朴相國 編.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 사찰문화연구원 編著. 『北韓寺刹研究』. 서울: 사찰문화연구원 출판부, 1993.
- 釋尾春苧 編. 『朝鮮古書目錄』. 京城: 朝鮮古書刊行會, 1911.
- 沈喁俊 著. 『日本訪書志』.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安啓賢 著. 『韓國佛教思想史研究』.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3.
- 尹炳泰 編.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 李箕永 著. 『韓國佛教研究』.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1983.
- 이재창 저. 『韓國佛教 寺院經濟研究』. 서울: 불교시대사, 1993.
- 李能和 編. 『(역주)韓國佛教通史』.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 李智冠 著. 『韓國佛教所依經典研究』. 서울: 伽山文庫, 1993.
- 李智冠 編.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서울: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6.

- 張伯偉 編. 『朝鮮時代書目叢刊』. 北京: 中華書局, 2004.
- 前間恭作. 『古鮮冊譜』 第一冊-第三冊. 東京: 東洋文庫, 1944.
- 鄭亨愚, 尹炳泰 編.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1995.
- 朝鮮總督府 編. 『朝鮮寺刹史料』. 東京: 國書刊行會, 1971.
- 朝鮮總督府 編. 『朝鮮金石總覽(영인본)』.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6.
- 蔡尙植 著. 『高麗後期佛教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3.
-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 崔應觀 編. 『雪峯山釋王寺略誌』. 京城: 朝鮮印刷株式會社, 1934.
- 韓國佛教研究院 編. 『북한의 사찰』. 서울: 一志社, 1978.
- 한상길 지음. 『조선후기 불교와 寺刹契』.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許興植 著. 『高麗佛教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6.
- 許興植 編著. 『韓國金石全文』.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4.
- 黃壽永 編著. 『한국금석유문』. 서울: 一志社, 1994.
- 黒田亮 著. 『朝鮮舊書考』. 東京: 岩波書店, 1940.

[논문]

- 金相溟. “朝鮮朝 寺刹板 刻手に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 金聖洙. “目連經의 성립경위.” 『圖書館學論集』 제10호(1983. 12). 1-25.
- 金永善. “高峰和尚禪要 板本考.” 『書誌學研究』 제14집(1997. 12). 161-212.
- 金亨坤. “釋王寺와 無學大師.” 『法施』 제73집(1973. 10). 27-30.
- 김창겸. “고대 安邊地域의 역사문화에 대한 검토.” 『민족문화논총』 제48집(2011. 9). 411-438.
- 南權熙. “東興備攷의 사찰 기록 연구.” 『嶺南學』 제2호(2002. 6). 97-142.
- 南權熙.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의 판본 연구.” 『國會圖書館報』 제38권 6호(2001. 11). 82-100.
- 閔泳珪. “목련경과 돈황의 變文.” 『史學會誌』 제1호(1963. 6). 1-17.

- 박도화. “『佛說大目連經』의 성립경위 재고와 판화의 圖像.” 『미술사학』 제12호 (1998. 12). 25-52.
- 배현숙. “蔚州 雲興寺의 불경간행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44집(2009. 12). 37-83.
- 배현숙. “大慧普覺禪師書 異本考.” 『書誌學研究』 제5·6집 합집(1990. 12). 161-181.
- 배현숙. “朝鮮時代의 寺刹文庫에 대하여.” 『圖書館學報』 제4집(1983. 10). 145-160.
- 송일기, 김은진. “몽산 덕이의 『蒙山和尚六道普說』의 판본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3호(2011. 8). 207-233.
- 송일기. “父母恩重經 韓·中板本考.” 『한중인문학연구』 제5호(2000. 12). 179-215.
- 오용섭. “영광 불갑사 복장본 강원교재 불서 연구.” 『書誌學報』 제35호(2010. 6). 183-206.
- 옥영정.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族譜, 童蒙書, 地誌, 日記類 등 책판의 성격과 가치.” 『大東文化研究』 제70집(2010. 6). 45-95.
- 유탉일. “嶺南地方刊行 有刊記 佛書 目錄.” 『鄉土文化』 3집(1970. 11). 267-302.
- 李龜烈. “광복 직후의 문화재 사건들.” 『文化史學』 제27호(2007. 6). 1089-1114.
- 鄭王根. “조선시대 『妙法蓮華經』의 판본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 정태혁. “함남안변 釋王寺를 찾아서.” 『北韓』 제71호(1977. 11). 136-139.
- 탁효정. “조선시대 王室願堂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 編史會. “釋王寺史料.” 『編史』 No.3(1970. 6). 10-37.
- 河村道器. “釋王寺創建の年代について.” 『朝鮮佛教』 第44輯(1927. 12). 36-37.
- 허홍식. “나옹선사의 생애와 사상.” 『나옹선사 학술발표대회 논문집』(2001. 5). 11-56.
- 황인규. “북한지역 사찰의 불교사적 의의.” 『大覺思想』 제17집(2012. 6). 133-168.

[참고 웹사이트]

『高麗史』: <<http://www.koreaa2z.com/>>.

『內閣日曆』: <http://e-kyujanggak.snu.ac.kr/sub_index.jsp?ID=NGK>.

『三國史記』: <<http://www.koreaa2z.com/>>.

『三國遺事』: <<http://www.koreaa2z.com/>>.

『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

『新增東國輿地勝覽』: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日省錄』: <http://e-kyujanggak.snu.ac.kr/sub_index.jsp?ID=ILS>.

『朝鮮王朝實錄』: <<http://www.koreaa2z.com/>>.

『增補文獻備考』: <<http://www.krpia.co.kr/pcontent/>>.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동국대학교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 <<http://buddha.dongguk.edu/>>.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한국고전적종합목록 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http://www.ugyo.net/>>.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http://www.kostma.net/>>.

